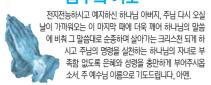
금주의 기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a절)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0호 2012년 4월 14일 (토)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찾아가서 교회공동체 세운다!"

크리스천센추리, 주류교단 감소 막을 방안 '새 교회개척'증가 보도

최근 주류 교단들의 대다수가 교세 면에서 뒷걸음질치고 있어 주목된다. 미 NCC(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SA)가 최근 발간한 '2011 미국/ 캐나다 교회연감'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한마디로, 최근 수년간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교단은 증가세를, 줄어들고 있는 교단은 감소세 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1 교회연감'의 편집 책임을 맡은 아일린 린드너 목사는 "증가 혹은 감소의 정도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최대 개신교 교단으로 오랫동안 기독교 성장을 견인했던 남침례교(SBC) 의 경우 작년 0.42% 등 3년째 교인 수 감소를 보였다"고 말했다.

25대 교단 중에서는 남침례교 외 연합그리스도의교회(2.83%), 미국장 로교(2.61%), 미국성공회(2.48%) 등이 감소대열에 합류했다. 복음주의

50년 전 미 주류 교회는 인구 1.5 억 중 주류 전통 개신교가 3천만, 5 분의 1을 차지했고, 주류 중 감리 교회는 거의 5분의 3을 차지했다 (1200만). 2009년 현재 주류 교회는 인구 3억에 2천만, 50년 전에 비해 교회가 3분의 1이 감소했고, 늘어난 인구비율로 보면, 주류 교회는 15분 의 1로 전락했다.

교회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사회의 세속화라는 외부 요인 을 언급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 한마디 로, 현대 사회에 대한 교회의 부적응 이 눈에 띈다. 특히 젊은 사역자들은 대체로 학교에 배치돼 있어서 교회 에 관련을 맺기 어렵고 교회현장은 나이 든 사역자들이 대거 점령하고 있어서, 새로운 목회적 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까 지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젊은 신학생들이 나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만 기다 리지 않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로 속속들이 파고들고 있다. 한마디로, 찾아가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루터교회(1.96%), 미국침례교(1.55%), 전통주의 루터교회(1.08%), 연 합감리교회(1.01%) 등도 퇴보를 보였다.

하지만 교인수가 가장 많은 가톨릭은 전년대비 0.57% 증가를 기록했으 며, 오순절 계통인 하나님의성회 역시 0.52% 늘어나 성령운동에 집중하 는 교회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했다.

따라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주류교단의 마이너스성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회 개척이 제기되고 실제로 융통성 있게 진행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센추리(Christian Century)가 커버스토리로 보도한 다. 동 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커뮤니티로 찾아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New Clergy, new churches: Church planting as a first call).

> 먹으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 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공동체의 이름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친절한 크리스천의 대명사인 리디 아를 본 따 즉 성리디아교회를 개척 하게 된 것이다.

20명 정도의 불신자들이 스캇의 사역으로 크리스천이 돼 이제 개척 교회로 자리잡게 됐다. 그런데 한 가 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교단의 제도 문제였다.

에밀리 스캇은 예일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아직 안수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교단 법에 위반된 것이 다. 먼저 성(聖) 리디아교회에서 베 푸는 만찬이 성만찬으로 되기 위해 서는 안수 받은 목회자만이 집전할 수 있고, 교회 개척을 원하는 목회자 는 기존 교회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의 사역과정을 거쳐야만 개척을 할 수 있다고 ELCA 교단 법은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LCA는 더 이상 교단 법 을 강요하지 않았다. 바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곧바로 교회개 척을 감행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사 역을 유예시켰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찾아가서 세우는 교회개척 페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있는 것이다.

복음주의루터교단(ELCA)에 속 한 에밀리 스캇은 3년 전부터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 사는 이십 대들을 위해 매 주일마다 아가페 만 찬을 열고 있다. 스캇은 X세대나 밀

레니엄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를 잘 알고 있다. 제도적인 교회 분 위기보다는 모두가 잘 아는 친밀한 분위기에서 평등한 참여를 바란다 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을 위해 고기를 굽고 쿠키를 만들어



2012년 이슬람 세미나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

미주크리스천신문, 30년 역사 지닌 문서선교지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전파" 사역을 문서를 통해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은 1982년 LA에서 시작, 30년 의 역사를 지닌 문서선교지이다. 특히 1992년 9월 11일 장영춘 목사 가 인수하고부터 나날이 발전을 더하고 있다.

기독교언론이 전무했던 동부지역을 커버하면서, 미주크리스천신 문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의 사시를 새롭게 내걸고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 43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 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발행인 장영춘 목사와 특별히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의 열성적인 헌 신으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미주 최대의 기독교신문으로 성장했으 며, 편집은 뉴욕에서, 인쇄 및 배부는 LA에서 하는 이중구조 속에서 도 컬러 제작과 교계 신문 중 가장 많은 량을 편집하는 등 큰 호응을

무게 있는 신학논단과 여러 목회자들의 칼럼, 시론, 설교와 지역 교 계소식 및 선교지 소식 등 다양하면서도 성경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편집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기독교계에서 인정받는 신문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주간 신문제작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적 차 원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매년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 안 호주, 일본,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주내 타 지역 등 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제 25회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들을 대 거 초청하는 선교대회로 개최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제26회는 라스베 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또 10년 전부터는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도 함 께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울 금란교회와 쉐라톤워커힐 호텔에 서 개최된다.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는 지구촌 곳곳을 순회하며 목회자들의 영 적 재충전과 목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며, 개최되는 각 지역교계 연합 과 부흥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일년에 한번씩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을 발간하여 세계 한인 기독 교계와 목회자들에게 정보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주소록은 미 주뿐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외한인교회의 주소를 확보하 며 매년 새로운 리스팅으로 교계에 필수품이 되고 있다.
- ▶이외에도 어린이 한국말성경 이야기대회, 간증수필 공모, 특별 세미나, 후원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나라 확장 사 업에 정진하고 있다.



"금란교회" 역사와 부흥의 현장

무릎 꿇다!



히스패닉 · 라티노 아닌 출신국가로 불러 달래!





외 장기 선교사

접수마감: 2012년 6월 16일(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타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 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교 공동체 훈련을 실시합니다. PGM의 비전을 함께 공유 하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를 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훈 련 비: \$300/개인 (항공료 자부담) \$500/부부 (항공료 자부담)

훈련내용: 선교훈련 전문가가 선교지 내에서 실시하는 On-site 훈련으로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

> Spritual Formation of Missionaries Survival Skills, Individual Intercultural Adjustment Cross Cultural Tools for Missionary Work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Evangelism Practice Fundraising Skills & Financial Reports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PGM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admin@pgmusa.org 전 화: (610)397-0484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사람은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존재 이다. 뜻을 세웠다고 모두 다 실행되 는 것은 아니며, 실행된 뜻이 모두 가 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만 뜻을 세우면 일반적으로 어떤 결 과에 도달한다. 그러니 뜻 세우는 일 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뜻이 세워지는 것은 아 니다. 많은 생각들을 담금질한 뒤에 소수의 뜻이 선다. 깊은 바다 속을 떼 지어 부유浮遊하는 플랑크톤이나 빠 르게 몰려다니는 군집 피라미 떼처럼

편린片鱗이라 부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 없이 우리 마음을 드나든다. '순간'이라는 시간의 길이만큼 아주 잠깐 왔다 가는 생각이 부지기수이며, 뜻으로 자리잡으면 아니 될 것이기에 스 스로 고개 흔들어 떨쳐내는 것도 셀 수 없이 많다. 썼다 지우는 자의 적 번복이나 시행 이전의 사思행착오도 보통 겪는 게 아닐 것이 분명 하다. 그러다가 짧든 길든 시간이 흐르면 그 중에 비슷한 것끼리 뭉쳐 하나 둘 구체적으로 정리된 뜻으로 세워진다. 물론 뜻이 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세운 뜻마다 모두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에 많은 좌절을 겪는다. 시도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뜻도 있고, 머리속 생각과 는 전혀 다른 길로 실행되는 것에 놀라 스스로 멈춰서는 뜻도 있을 것 이다. 많은 뜻이 내적 좌절과 외적 도전으로 인해 구부러지거나 꺾이 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만 어떤 결 실로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소수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귀소본능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오는 연어와 같다. 바다에 살던 연어가 자기 생명 이 시작되었던 강으로 올라와 한 마리당 이삼천여 개의 알을 낳지만 그 중에 장성하여 다시 알을 낳으러 오는 연어는 극히 적다하니, 뜻이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시간적으로 짧은 세상,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자기자원(resource) 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생각과 뜻이 결실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세월을 낭비(헛된 소비)하지 않고 사는 중요한 길 중의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결실로 나타나도 쓸모없는 것들뿐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생각 초기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겠지만 의도적으 로도 비교적 일찍 차단하고, 가능한 흔히 말하는 '쓸모 있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사실 쓸모 있다는 말은 주의해야 할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산적사고'라 부르기도 한다. 생각이 무엇인가 가 치 있는 결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내기에는 너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 정해야 하며, 또한 인간의 인간됨이 결코 '생산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 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 마음에서 비롯된 '복음적사고' 혹은 '성경적사고'이며, 그에서 비롯 된 생각과 뜻을 품고 사는 것이다. 세상에 뜻이 많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했으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품 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크고 많은 것이 좋다는 세상에서 반드 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높고 유명한 것을 추 구하는 세상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쉽고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고난이라도 견디어낼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너를 생각하며 우리 가 중요하다는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는 시간에도 자기의 생각과 뜻을 돌아보아야 한 다. 무엇보다 생각하고 뜻을 세우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자기를 잘 다 스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 아직 오지 않은 결과까지도 미리 다 스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 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버릴 것 없는 생각만 하고 살면 될 것이고, 그러면 버릴 것 없는 결실을 이룰 것이다.

봄바람이 분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왜 그리 많은 생각들이 드나드 는지 모르겠다. 무책임하게 '춘몽'이라는 한 마디 던져놓고 지나가는 자유로운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될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외 쳐본다. '우리에게는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사고가 버릴 것 없는 생각 이자 뜻이며, 그에서 비롯된 결실이 이 땅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참 된 생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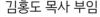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호스트 "금란교회" 역사와 부흥의 현장

김활란 박사의 '전도의 정신'과 4대 김홍도 목사의 '영혼구원 제일주의' 정신에 입각해 세계 최대 감리교 회로 자리매김한 금란교회(동사목사, 김홍도 김정민)가 본지에서 개최하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 나' 호스트 한다. 전 세계 목회현장과 선교현장에서 지친 한인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숙식을 제공 하는 금란교회의 시작과 발전, 현재를 돌아보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재충전 받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금란교회의 시작

○…금란교회 이야기는 1957년 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도 의 망우동은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 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고달픈 인생의 종착지와도 같은 곳 이었다. 지금은 신흥주택가와 교육 지구로 변모한 곳이지만 당시엔 논 과 밭이 대부분인 전원시골과 다름 없었다.

이곳에 자리 잡은 금란교회의 명 칭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고 김활 란 박사가 1957년 이화의 교직원과 학생들로 '금란전도대'를 조직해 전 국 방방곡곡을 돌며 전도를 시작한 데서 유래된다. 동년 7월 망우동(당 시 망우리)에서 전도를 시작해 복음 의 씨를 뿌리기 시작한 이들은 이듬 해 1958년 11월 경기도 양주군 구 리면 망우리 금란동산에서 15평의 천막교회를 짓고 10여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금란교회 의 태동이다. 금란교회 초대 목사 최중련 목사는 1961년 5월 이화여 대에서 기증한 부지에 24평의 성전 을 건축했다.



○…열악한 주변 환경 때문인지 김활란 박사를 기념해 세운 금란교 회에 선뜻 지원하는 목회자가 없던 차, 1968년 2월 목사안수를 받은 김 홍도 목사가 1971년 3월 망우리 금 란교회로 부임했다. 김홍도 목사가 부임했을 덩시는 24평의 교회건물 에 교인 수는 약 75명 정도였는데 김 목사 부임 3개월 만에 성도의 수 가 300명에 달했고 예배당 증축이 불가피하게 돼 30여 평을 증축, 50 여 평의 성전을 마련했다.

이후로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다. 예배당이 비좁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1973년 대성전 을 준공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당은 나날이 좁아만 갔다. 성도의 수가 15,000여명에 이르자 1982년 교회 맞은편에 위치했던 우성쇼핑센터 건물에 입주해 그곳에서 예배를 드 리며 2년여 간 건축 끝에 1984년 8 월 연건평 2,500평 6,000석의 대 성 전으로 입당하게 됐다.

날로 부흥하는 금란교회



김홍도 감독

○…금란교회를 이끌어 가던 김

홍도 목사의 목회 방침은 '오직 영

혼구원'에 있었다. 김 목사는 설교

때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

에 의해 12,400평 1만석의 성전건 축을 결의하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 도와 간구를 통해 1999년 12월 아 름답고 웅장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 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은 혜로운 첫 예배를 드렸다.

김정민 목사



금란교회 예배 관경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실한 구 원관을 전했다. 성도들은 구원의 확 신을 갖게 됐고 예배 때마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금란교 회의 특징이 됐다. 그뿐 아니라 많 은 교인들은 밤 예배에도 몰려들었 고 그 시간을 통해 김홍도 목사는 ' 성경강해'를 이어갔다.

1984년 대성전 입당예배를 드린 후 모든 교인들은 더욱 전도에 힘썼 다. 그 즈음 김홍도 목사는 해외로 도 눈을 돌리게 되어 해외선교는 물 론 수많은 국내 부흥집회 인도, 방 송설교 등으로 이어져 김 목사의 설 교가 국내외적으로 전해지면서 세 계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3번에 걸친 성전 재건축에도 불 구하고 6,000석의 성전이 비좁아 어 려움을 겪던 중 1994년 당회의 결정 의 달'을 정했고 더욱 전도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사는 총동원 주일이 아닌 '총력전도

"나도 한사람, 너도 한 사람"이 라는 표어로 시작된 총력전도대회 는 한 주일에 2000명에 달하는 새 신자가 등록하면서 '10월 총력전도 의 달'을 통해 일만명의 영혼구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

영혼구원을 최고로 삼는 담임목 사의 목회방침에 순종하며 오직 기 도와 전도를 통해 금란 교회는 해 마다 놀라운 부흥성장을 거듭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 올바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로 우뚝 세워졌다.

한편 김 목사는 2007년 6월 라모 스 전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 되는 세계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으 며, 2008년 1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제정하는 2008 대한민국 종교그랑 프리를 수상하게 됐는데 이러한 수 상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 를 마련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역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금란 교회를 섬긴 김홍도 목사는 2008년 김정민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고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동사목사로 추대를 받았다.

피의 복음과 십자가, 영혼들의 구 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금란교회 의 부르짖는 기도의 힘이 아버지 세 대에서 아들세대로 자연스럽게 전 달됐으며, 교인들은 혼돈과 갈등 없 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세대교체라 고 평가하게 됐다.

동사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홍 도 목사는 "원로목사라고 하면 교회 와 너무 멀어지는 듯해서 동사목사 로 죽을 때까지 담임목사와 같이 사 역할 것"이라고 말한다. 혼자 하던 일을 둘이 하니 큰 힘이 되고 더 부 흥이 된다는 것이 김 목사의 말이 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처신문

○…지난 2001년은 김홍도 목사

가 금란교회 시무 근속 30주년이 되

던 해였다. 그 해의 표어가 '성령 충

만하여 추수하는 교회'였는데, 김 목

The Korean Christian Press

세계적 교회로 확장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성령이 임하시는 절정의 시간!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2012 목회자의

목회자의 영성이 깨어야 성도들이 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해마다 4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는 한국 최대 목회자 부부 세미나!

다이나 및한 기도의 능력과 불붙는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윤석전목사! 한국 교회에 복음적인 설교와 영적 부싯돌같은 목회정보를 통해 영성회복운동을 이끌어가는 김항안 목사!

<u>잠든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향한 두 목회자의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거운 소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u>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혀 새로운 목회의 세계가 열립니다!!

강사: 윤석전목사, 소강석목사,김항안목사

일시: 2012, 6, 4(월)~ 6, 7(목)

장소: 수원흰돌산수양관

윤석전 목사

소강석 목사



등 - 록 - 비 - 무 - 료







김항안 목사



소형차 3대

바라가성의





수원흰돌산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24

▶ 찾아 오시는 길 : 수원역에서 32번, 33번 발안행 버스(당하리 하차) ※차량운행 / 흰돌산수양관 입구(당하리) ⇄ 수양관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 성회등록방법 |

□ 성회안내 및 등록문의 : 한국교회정보센타 Tel. 1566- 3004 /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Tel. 02- 2680- 0001

1. 인터넷등록 | 한국교회정보센타 홈페이지(www.kcdc.net), 혹은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www.yonsei.or.kr){를 통해 등록 2. 인터넷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 전화 1566-3004를 통하여 등록

※ 준비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

□ www.kcdc.net □ 수원흰돌산수양관 Tel. 031- 227- 3111

샌토럼 돌풍, 현실정치에 무릎 꿇다!

http://www.chpress.net

미 언론, 10일 전격 사퇴한 릭 샌토럼 후보의 정치적 의미 해석

공화당 대선주자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10일 경선 중도포 기를 전격 선언했다. 샌토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 인 펜실베이니아 게티스버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대선레 이스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오는 11월 6일 본선에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이길 수 있도 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에서 소위 "기독교 우익"의 재건을 다져가는 주자로 발 돋음한 샌토럼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에는 바로 "현실 정치"의 벽 을 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미 언론의 공통적인 분

대선에서의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공화당 중도 진영은 계속해서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는 샌토럼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2008년 대선주자이자 원로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 조차 예비경선 2위를 달리고 있는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에게 '명 예로운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11월 대선에 나설 후보를 인선하기 위한 공화당의 예비경선 과정이 장기화할수록 민주당의 버락 오 바마 후보가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대권 경쟁력 확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샌토럼 후보는 10 일 경선 중도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바로 대의원 수 열세와 대권 에서의 경쟁력 즉 자금과 인력 동원 그리고 정치 신인이라는 점들 이 작용했다.

미 언론은 한마디로 릭 샌토 럼 후보의 약진을 보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특히 정치 적 신인이기에 갖는 정치 자금 이나 인력 동원 등 온갖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자금력과 지명 도가 높은 롬니 후보와 경합을 벌여 11개 주에서 승리를 일궈 냈고 수백만 표를 얻었기 때문 과 조직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통해 바 닥 표를 훑으며 선전했으며 중 도성향이 강한 롬니 전 주지사 에 맞서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 으로 일각에서 `보수 대표주자' 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확보 경쟁에



공화 대선주자 였던 릭 샌토럼 전 의원의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의 가족 도 자리를 함께 했다.

2012년 공화당 경선에서 샌 토럼 후보가 지금까지 "돌풍" 을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공 화당내 기독교 복음주의 신자 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보수 주의' 세력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동안 동성 애자 결혼과 낙태 문제 등 사회 적 이슈에서 강한 보수적 입장 을 견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주 율을 설문 조사했다.

먼저 롬니 후보와의 대결 구 도 시, 지지율은 한 자리 단위 싸움이다. 즉 52% vs. 48%로 오 바마 대통령이 우세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롬니 후보를 지 지하는 유권자들이 "미지근한" 세력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 롬니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즉 오바마 후보를 지지할 수 있 는 유동층이라는 점이다. 결국 48%의 지지자들 중에서 2/3만 이 롬니 후보의 부동층이기에,

미 대선, 진보와 보수 간 치열한 한판 승부 샌토럼 전격 사퇴에 오바마 적수는 롬니 확실시

이다. 결국 롬니 후보는 2012년 대선을 수년 전 부터 준비하면 서 막대한 자금력과 선거 캠페 인으로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 했지만 샌토럼 후보 진영은 보 수적인 메시지로 유권자들을 마음을 움직였다.

샌토럼 전 의원은 공화당 대 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 전 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승리를 시작으로, 당 안팎의 예 상을 깨고 초반 `돌풍'을 일으키 며 롬니 전 주지사와 양강 구도 를 형성해왔다. 특히 그는 자금

서 롬니 전 주지사에게 크게 뒤 진 데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펜 실베이니아 주 프라이머리(예 비선거)에서도 패색이 짙어지 면서 포기를 선언했다.

이날 CNN방송 집계에 따르 면 샌토럼 전 의원이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는 275명으로 롬니 전 주지사(651명)의 절반 에도 못 미쳤다.

'3염색체성 아울러 18(trisomy 18)'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막내딸 이사 벨라의 건강 문제도 중도포기

창해온 릭 샌토럼 후보만이 성 경적인 가치관을 삶과 함께 정 치 현장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고 믿었기 때문이다.

최근 바나 리서치의 설문 조 사 결과도, 복음주의자들이 어 느 정도나 샌토럼 후보를 지지 하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만약 오늘 대 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재선 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 화당 예비 주자 3 명간의 지지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는 분석이다.

반면에, 샌토럼 후보와의 대 결은 한마디로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판명된다. 일단 51%의 지지율로 샌토럼 후보 가 49%의 오바마 대통령을 앞 선다. 롬니 후보를 지지하는 유 권자들과는 달리, 샌토럼 후보 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한마 디로 '일편단심'이다.

〈2면에서 계속〉

목회자세미나 후원 세 번째

○…본 지가 주최하는 세계 한인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호 스트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데 이번이 세 번째다. 많은 물질 과 기도를 동반해 기꺼이 호스 트가 되어준 김 목사에게 그 이 유를 물었다.

"기독교 계통의 미디아들이 자칫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일 을 하기 쉽습니다. 이단을 합리 화 정당화 시키는 오류도 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미주크리 스천신문은 정통보수신앙과 보 수사상을 가지고 반공을 견지 하고 나가므로 미주크리스천신 문을 최대한 널리 반포하는 것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라고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을 섬기 고자 합니다. 부디 축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영적으로 도전 받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자 기자〉

"찾아가서 교회공동체 세운다!"

〈1면에서 계속〉

ELCA의 이러한 결단은 다른 주류교 단에게도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즉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교단 법규를 과 감하게 변경시켰다.

미국장로교회(PCUSA) 역시 제일 먼 저 교단 법규에 관계없이 미전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곧바로 교 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 결과 루이스빌에서는 달리기와 자전 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Sweaty Sheep), 피츠버그에서는 타투(tattoo) 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문신을 새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Hot Metal Bridge)가 개척됐다.

이외에도, 수도원 운동을 표방한 새로 운 수도원 교회들이 피츠버그(PCUSA), 오스틴과 시애틀(ELCA) 그리고 내시빌 (UMC)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성공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스 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스턴에서 는 노숙자를 위한 공동체를 그리고 라 우데일에서는 라티노들을 위한 커뮤니 티 센터이자 교회를 개척했다.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최근에 안수를 받았거나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들에 의 해서 개척된 것이다.

주류교단 신학교들 역시 교회 개척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으로 신학생들을 교 회 개척을 위한 첨병으로 만들고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이나 성 경 해석보다는 원초적 복음 그대로 지 역사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동체 를 세울 수 있는 노하우와 원리를 강조

패시픽루터란신학교(PLTS)는 샌프 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복음으로 사회 적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프린스톤신 학교는 "선교적 해석학"을 통해 지역사 회의 요구나 필요를 복음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세인트폴 루터신학교는 목회 자들의 은사들을 분별하고 교회 개척 에 적절한 도구로 응용할 수 있도록, 선 교학과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인트폴 경우 M.Div과정 신학 생들은 반드시 지역 교회 맥락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리서 치 해야 하고, 사회 과학의 방법론들을 익혀 지역사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류교단 신학교들의 이러한 교과과 정 변화는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부터 시작된다. 즉 '70, 80년대 신학교 교육은 이미 기존해 있는 주류교단 교 회들을 위한 교육이었다'라는 반성이 다. 따라서 교회 행정이나 교육에만 충 실했지, 전도는 더 이상 이들에게 시급 한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고인 물은 반 드시 부패하듯이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

한 결과 주류교단은 계속 마이너스 성 장이라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교단과 신학교에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 는 한 교회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뒤늦게나마 절감하게 된 것이다.

피츠버그신학교는 심지어 신학교 교 수진들까지도 이전에는 교회개척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360도 달라졌다. M.Div 과정에 교회개 척을 위한 커리큘럼이 없으면 신학생들 의 관심을 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부터 교회개척에 관한 커 리큘럼을 도입한 피츠버그신학교는 이 미 지난 100년 전부터 시작된 오순절 교단이나 침례교회의 교회개척원리를 도입해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피츠버 그에서 교회개척으로 전공을 삼는 신학 생들의 경우, 첫 번째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반드시 2주간의 인텐시브과정으 로 전도학과 리더십을 끝내야만 한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속 한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경험을 완수해 야만 한다. 실제로 한 신학생은 지역사 회 커피숍에서 바리스타(barista)로 일 하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의 관심사와 필 요가 무엇인지를 리포트로 보고하기까 지 했다.

마지막으로, 주류교단 본부 목회자들 은 신학교 재학 여부에는 상관없이 지 역사회에서 리더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마 다 갖는 특성에 따른 신학교 교육이 아 직까지는 충분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어 느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잡은 사람이나 기관과의 네트웍 형성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성공회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실제 로 사역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는 리더 를 돕는 목회 즉 보스턴에서의 동성애 자 커뮤니티(LGBTQ)나 플로리다의 라 티노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이자 커뮤니 티 센터의 리더들을 돕고 이들을 집중 적으로 교육시켜 안수하고 있다.

결론으로, 주류교단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 추세가 바로 1 세기나 2세기 전통으로 돌아가고 있다 고 진단한다.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 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행착오나 실 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포스트모던이 즘이라는 시대상에 굴복하지 않고 원초 적인 복음 그대로를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찾아가서 삶을 나누어가는 공 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주류 교단은 더 이상의 신학적 논쟁으로 불 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 에 충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림] 다음 주는 정기휴간이므로 신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उर्ध श्री धुर्य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특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햄함)
-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화순용주의 선택



한평우 목사 | (로마한인교회)

조선시대에 옹주가 죽은 남편을 사랑하여 스스로 먹기를 거절하고 목숨을 끊어버린 드문 사건이 있었 다. 이런 일은 당시로는 아주 희귀 한 일이다. 임금의 딸은 한 마디로 지체가 얼마나 높은지 그와 결혼하 는 남자(부마)는 절대로 바람을 필 수 없었고, 그 당시 문화에 흔하기 만 했던 첩을 들이는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부마는 아내가 죽어도 재혼을 할 수 없고 재혼을 한다 해 도 그 아내는 첩의 신분으로 있어야 했다. 또한 남편의 집안이 대역죄에 연류되어 풍비박산이 난다해도 그 의 아내 된 공주는 왕녀의 신분이 보장되었다. 행여 시어머니가 왕녀 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소문이 궁궐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엔 목 숨은 부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왕녀 중에 아 주 특이한 분이 있다. 그 분이 바로 조선시대에 가장 장수했던 영조의

큰 딸 화순옹주(和順翁主)다. 그녀 는 정빈 이씨의 소생이다. 옹주라 함은 정실 소생이 아니라 후실 소생 임을 의미한다. 그녀는 후실의 둘째 로 태어났지만 언니가 일찍 죽었기 에 장녀가 되었다. 영조 자신은 무 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용상을 넘볼 수 없는 정황이었지만 숙종의 아들 인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일찍 세상 을 떠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임금 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정상적으 로는 임금의 장자로 태어나 세자로 책봉되어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임 금이 되어야 하는데 어부지리로 되 었으니 소위 가문 좋은 신하들이 얼 마나 입을 삐죽였을까 싶다. 저 사 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천민 무수리 출신인데.... 그러므로 그는 정실부 인을 통해 아들을 낳아 여봐란 듯이 세자로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인력 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는 화 순옹주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수 없었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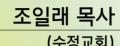
그런 딸을 영조8년(1732년)에 영 의정 김홍경의 13살 난 아들 김한 신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의 묘가 충남 예산에 있는 것을 보아 시집이 충청도 예산이었던 같다. 부마 김한 신은 오위도총부 도총관과 제용감 제조를 역임했는데 글씨를 잘 썼고 시문에 능했다고 한다. 그래서 애책 문이나 시책문을 많이 썼고 또 도장 을 잘 새겨 임금의 도장을 새기기 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1758년 건 장하던 남편 김한신이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식도 없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남 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그녀의 슬픔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곧 남편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곡기를 끊어버렸다. 그 후부터 입에 물 한 모금도 대지 않았다. 이레 되 던 날 이 소식이 임금 영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영조는 임금의 체

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딸 의 거처를 찾아갔다. 그리고 친히 미음을 먹도록 권했다. 옹주는 용포 를 벗고 먼 길을 달려온 임금인 아 버지가 수저로 떠먹여주는 미음을 거절할 수 없어 몇 숟가락 뜨는 듯 했지만 그것들을 이내 토해 버리고 말았다. 옹주는 결국 열 나흗날 만

에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세상 의 이목을 집중케 한 영국의 황태 자 다이애나 비에 대한 생각이 오 버랩 되었다. 그녀는 옹주와 비슷한 나이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는 이유로 맞불 작전을 펴다가 파 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젊은 나이에 연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옹주나 다이애나 비는 막강한 힘과 인기를 지녔던 당시 선택받은 사람 들이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이용 하여 쉽게 변하는 사랑에 목을 매 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눈을 떴으면

어떠했을까? 옹주는 아버지 영조의 힘을 빌려 고통당하는 마을 사람들 을 구제하고 돕는 길을 걸어갔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싶다. 마침 영 조가 장수한 왕이었기에 그 튼튼한 후원자로 유감없는 선을 죽을 때까 지 베풀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 랬다면 그를 통해 지엄한 왕실과 평 민을 소통케 하는 선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 은 그녀의 헌신으로 행복을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옹주는 삶 의 이유가 무수하게 많았는데 그것 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런 딸을 영조는 괘씸하게 여겼기에 옹주에 대해 열녀문을 세 워주어야 한다는 무수한 상소문들 을 짐짓 모른 체했다. 그리고 옹주 에 대한 열녀문은 손자 정조가 세워 주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 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 한 삶의 문제다 싶다.

푸/ 른/ 초/ 장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고위 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 여준 투철한 도전의식과 솔선수범 되었습니다. 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 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 위층의 전쟁참여, 공공봉사, 기부 나 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고, 이것 은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 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고, 실제 로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 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 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 로 참전하였습니다. 6.25전쟁 때에 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 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지 100주년 이 되는 2012년 1월 13일 이탈리 아의 질리오 섬 연안에서 약 4,200 명을 태운 11만5천 톤급의 호화 크 루즈선인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가 좌초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20여명 의 사망 및 실종자와 많은 부상자 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 장인 52세의 프란체스코 스케티노 씨는 승객이 탈출하기도 전에 배를 버리고 먼저 달아난 혐의를 받고 당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

습니다. 100년 전의 타이타닉호 선 장과 달리 승객의 구조보다는 자기 부터 살겠다고 먼저 배를 떠난 이 선장에게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 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 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한 주인이 일만 달란트란 거액을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 전액을 탕 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나 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찌해 볼 수도 없는 수많 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바로 하나 님의 은혜입니다. 만 달란트의 빚 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억만가지 죄와 빚을 용서 받고, 탕 감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 달란 트는 하루의 품삯을 100달러로 계 산할 때 현재의 돈으로 약 100억

부흥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은혜입 은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엄청난 은 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 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 리는 자녀됨을 인하여 늘 감사하면 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받 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 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 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장사 하여 이익을 남길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 기에 그 은혜에 대하여 열매를 맺 어야 하는 당연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큰 은혜를 입은 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히 말하 고 있습니다.

3.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 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은혜 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과 달리 한 달란트만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그 종에게는 책망과 형벌 이 있게 됩니다. 눅19장에 므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므나를 받은 종은 자기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한 므나마 저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26절에 "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책 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 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 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같이 하시리라"(35절)는 예수님의 말씀 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4. 큰 은혜 입은 자가 마땅한 책 임을 다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 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 달 란트를 남기자 한 달란트 받은 어 리석은 종의 한 달란트까지 추가하 여 받는 복을 누리게 되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므나의 비유 에서도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만든 사람은 칭찬을 받고, 열 고을을 다 스리는 권세를 받고 덤으로 한 므 나를 더 받게 됩니다.

계2:10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 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 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 면서 충성한 사람이 놀라운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물 질도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온전 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대로 창고가 넘치는 더 큰 복을 누 리게 됩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여겨 충 성하지 못한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받은바 복과 은혜 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치 못하 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 니다.

시116:12에서 시편기자는 "내 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 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충성할까를 늘 기도하고 고민하며 사는 충성스런 종이 되어 나도 복 되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복되게 만듭시다.

은혜와 책임 마태복음 18장 23-36절

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동료를 만나서는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 야기를 전해들은 주인은 심히 노하 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비유 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을, 일만 달 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우리그리스 도인들을 나타냅니다.

1.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망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 다.

은혜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합니 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감

달러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 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의 죄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분량임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탕감해주 시고 용서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 랑, 엄청난 은혜를 기억해야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2. 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마땅한 큰 책임이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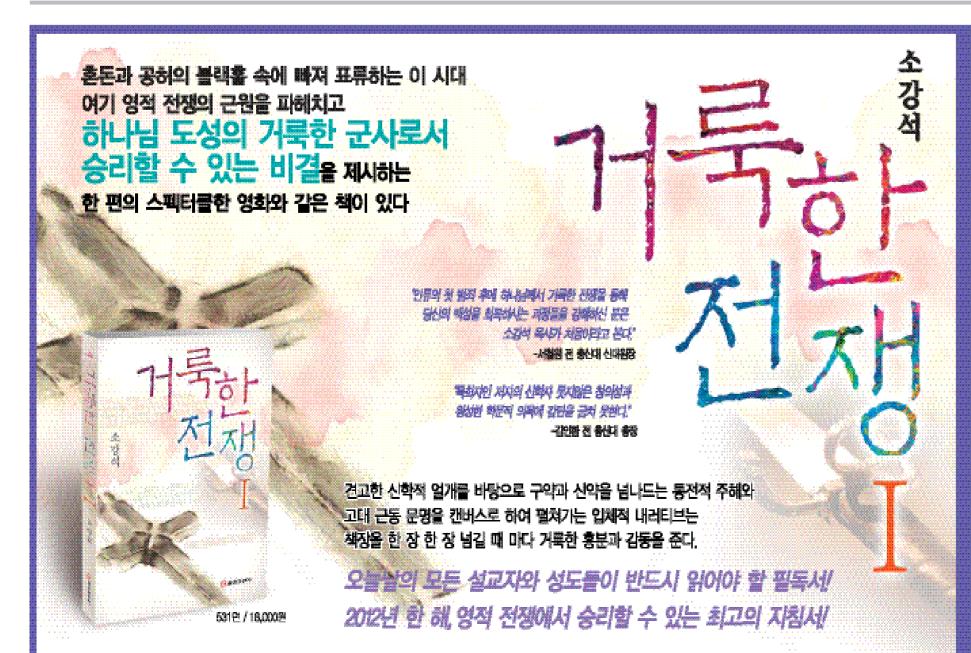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은 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큰 은 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 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보 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은 그 큰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 님의 뜻을 따라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어야만 하는 책 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눅12:47-48에 "주인의 뜻을 알 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 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반 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오늘 본문의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종도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인 이 알고서는 그 배은망덕한 악한 종을 잡아와서는 내가 너를 불쌍 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 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 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 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습니다(33-

하나님으로부터 억만가지 죄를 용서받고 망극한 은혜를 입은 우 리도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 답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와 은 혜가 소멸되고, 대신 형벌이 따를





면말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6년 왕간 문에서로 로 등단하여 한국 문인점에 회장으로 통한 중이다 시대했고 적 당인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업은 제 이 1위 부흥의 인도를 통해 다음 서대를 OBOTE 차세대 대표 주시로 주목했고 인 다 목당2006 - 한국가독의출판함회 신청 출민문화상 확유수생 기관 루터 김 터리

이는 점험적인화가 수이라는 국제공화생을 수생한 내 있고 한국기독교선교의 성 한국가목교문하다성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등학장을 수상했다.임시각으와 복양청신과 이렇다운 순행에서 나오는 그의 집을 활용은 많은 축자들이게 찬 전반 감동을 선사되고 있다.

gg platete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부르다가 작용 노리 아가 30건/3006





해두인의 눈으로 본

음력부산자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의 교육은 정적인 교육으로 실질적 인 행동이나 체험보다는 주입식으 로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 전반적인 교육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 자녀들의 학습현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과학시간 에 전기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고 가 정해봅시다.

우리 부모세대는 과학실습을 하 긴 했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과정을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전기가 생겨 전구에 불이 켜 지는 것을 보고 전기를 이해하고 배 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녀 들의 과학실습은 다릅니다. 선생님

正安建设

Teaching Method 계발 문화에 의한 접근 방법 7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80%가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95% 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현실로 들 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이 교육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아이들 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열심 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 다. 부모를 따라 온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

http://www.chpress.net

은 많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죄가 될까? 아닐까? 내가 이런 일 을 하면 남이 욕할까? 안할까? 망 설이다 보면 이미 때는 늦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녀들 이 살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라 이프스타일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 다. 교육현장에서도 교육사조가 동 적인 교육으로 행동하는 교육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 회만 오면 완전히 미개한 나라, 이상 한 나라에 온 것처럼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님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다면 그 지도자는 아이들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 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 다. 그 아이들의 교육은 노래하며 율 동하며 만들어가며 찾아가며 주님 을 발견케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학 습활동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전개 해야 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 치는 지도자가 아동심리나 아동들 의 신체 심리나 인지발달심리 등 아 이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어른들 이 은사체험을 하듯이 물리적인 흉 내내기식 연습으로 마치 영적체험 을 갖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로 있었던 일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 단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 이 우리에게 임하면 몸이 떨리고 뒹 굴고 혀가 돌아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교실안 불을 끄고 아이들로 하여금 교실바닥에 서 대굴대굴 구르게 하고 벌레가 기 어가듯이 기게 하고 손과 발과 머 리를 떨게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마 치 방언하듯이 이상한 말을 지껄이 게 한다면 그런 비정상적인 경험으 로 인하여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면 서 그 경험이 생각날 때마다 스스로 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은 물론 유치 한 행동으로 인한 민망함에서 성령 에 대한 인식과 체험에 대한 불편 함이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심

현대 교육 문화는 "Doing First, Thinking Next" 행동하는 신앙...체험 통해 터득하고 인식돼야 변화

이 시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테이블 별로 그룹마다 전기를 일으키기 위 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스스로 전 기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 업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테이블 여 기저기에서 전기를 발명한 아이들 이 환호성을 지르는 관경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조적인 사고를 계발 시킴은 물론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같이 살고 있 는 학교교육의 현장이 이와 같을 진 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담 당하는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에 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 기처럼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주 듯이 성경을 가르친다면 과연 아이 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아 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연령 과 그들의 세계관에 따른 교회교육 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은 그들에 게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우리 자녀들이

이들은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교훈으 로 남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 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도 어 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 나고 영적인 체험을 갖도록 하려면 교육방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수 동적인 교육,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 나 동적인 교육, 행동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머리나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 닙니다. 적어도 행동하는 신앙 즉 내 가 믿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그리고 내 삶의 태도와 양식을 바꾸 는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이나 이율 배반적인 신앙을 가진 신앙과 생활 이 일치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모순 된 신앙관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Doing First, Thinking Next"라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과 문 화를 말해주는 가장 적합한 표현입 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듣고 이 해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 람들이 먼저 행동으로 옮긴 다음 항 상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 교인들의 대부분이 대체로 우유부 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리듬이 끊이는 듯한 현상과 질식하 게 하는 지루함으로 교회에 대한 친 근감을 저하시키고 별로 즐겁지 않 은 교회생활의 기억을 심어주게 된

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합 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이 예배 당에 가득히 모여 긴 시간 동안 움 직이지 않고 귀로만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과는 정말 상황이 다 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이 들은 교육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다릅니다. 더구나 풍요롭고 문화적 으로 최첨단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 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주일학 교교육을 통해 훈련받는다는 것은 고도의 전술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집중하는 시 간이 짧습니다. 5살-7살 정도의 아 이들은 부동자세로 1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연령의 아이들은 움직 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는 아 프거나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 들의 교육을 담당한 지도자가 아이 들을 꼼짝 못하게 앉혀만 놓고 하나

히 염려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잘못 된 교육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얼 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를 공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교육, 주일학교교육을 영어만 할 줄 알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가 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실 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한다면 아 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 부 모들이 세운 교회와 선교와 사역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주일 학교교육을 개혁하십시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하 는 것은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강 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육 을 전공한 현직교사나 전직교사 또 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찾아내 지도자들의 영적인 교육과 목회방 향은 담임목사님이나 교육목사님 이 감당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다 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교 육을 그 교육자들로 하여금 담당하 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한국인들은 겉을 중요시하는 포장문화인데 비해 유대인들 은 겉보다 실속을 중요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 연 어떻게 속을 튼튼하게 가꾸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한국인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포장 문화"입니다. 한마 디로 속이나 내용은 어떠하든 겉은 화려하게 꾸밉니다. 왜냐하면 사 람을 겉모양이나 차를 타는 것을 보아 사람을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 회 의식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영과 사치에 치우쳐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겉을 치장하게 되면 속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는 종교적, 문화적 전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 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속이 비 었다는 것이 주로 세가지의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1) 민족정신이 결핍한 사람을 속이 비어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 의 재산이 태산같이 많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정신과 긍지를 이어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속이 빈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 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머리가 둘 있는 어린 아이가 탄생했다면 그 어린 아이는 둘인가? 하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랍비의 대답은 간결 합니다. 뜨거운 물을 머리에 조금 닿게 할 때 양쪽이 모두 비명을 지 르면 한사람이고 한쪽만 소리 지르면 두 사람이다. 우스운 이야기이 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린싹들에게 민족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세계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

민족정신·신앙·지혜 없으면 속 빈 자

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박해로 느끼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967년 이스라엘 과 아랍국가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 이스라엘 행 비행기를 타려는 유대의 젊은이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미국에서 태어 난 미국시민이지만 조국이스라엘의 국난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 다는 정열의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용약전열에 참여하 여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경의에 찬 대열이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민족정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2세들에게 한국인의 장점과 아이덴티 티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속이 빈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 어 신앙은 민족의 생명이고 한사람의 영혼을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속이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속이 빈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1: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3) 지혜가 없는 사람이 속이 빈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는 다른 능력, 남이 생 각하지 못하는 착상, 삶을 현명하게 설계하는 슬기를 말합니다. 그 래서 유대인들의 어린이에게 소개되는 위인전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즉 신앙심이 두텁고 지혜가 풍부하며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민족 적 정신을 유지해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여들이 세운 신학교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산학교(ATS 정회원)

> > (2) FAFSA(연방점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위

름학기 본교강의안내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iter, Professor

PM 826 Current Theology Issues (원대신학동함)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rk Soto, Professor

May 28-May 31 (5월 28 - 5월 31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 (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PM 853 Strengthening Spiritual Vitality (영성당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Professor

필리핀 현지강의 안내

- 일시 : April 16-April 19(4월 16일-4월 19일) - 과목: PM 801 Leadership in Local Church(지역교회 리터십)

- 교수: Dr. Jeffrey Gill(제퍼리 길박사)

- 장소: 쉐마선교센터(마닐라)

- 여성선교사 지도력 개발 세미나(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 일시 및 장소: April 17(마닐라), April 19(다바오)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석사과정(M.A.)

4. 선교학 석사학위 전과목 온라인 강의 5,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례

May 21-May 25 (5월 21 - 5월25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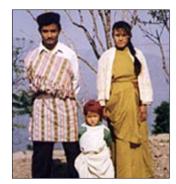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E-mail: parkro@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레프차(LEPCHA)



약 3만의 레프차인들은 부탄의 남서쪽 울창한 밀림에서 살고 있 다. 부탄은 세계 유일의 불교왕국 이며 이 작은 국가는 인도와 티벳 사이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 다. 또한 부탄은 "천둥용의 땅"이라 는 의미의 "Druk-Yul"로 잘 알려 져 있다.

부탄의 동쪽에 위치해있는 Sikkim은 레프차의 근원지이다. 그들 은 농경지가 거의 없는 부탄의 남 서쪽 지역의 계곡과 구릉지역에서 거주해왔다. 레프차 같은 이주민들 은 히말라야지역의 중앙부로 들어 와 사는 것이 금지돼있어 이 문제 는 큰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비록 레프차인들은 부탄의 시민임을 보 증 받고 있지만 그들은 지독한 인 종차별로 고통 받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레프차는 네팔 인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 으며 부탄에서 사용되는 티벳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레프 차 언어로 말하며 대부분은 문맹이

압

삶의 모습

레프차 공동체는 깊은 계곡 속에 있다. 산지의 우거진 숲과 계곡속 의 쌀 경작지는 그들의 생계에 큰 뒷받침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민 들은 화전법(산의 나무를 베고 태 워 밭을 만듦)을 이용해 경작한다. 일부는 커다란 숲 지역에서 정착해 거주하고 있다.

계곡의 공동체와 거대 가족 공동 체들은 레프차의 오랜 관습을 좇아 가는 유일한 문화의 한 축이다. 이 러한 레프차들은 대부분 흩어져 살 고 있지만 때로 그들의 경작지 근 처의 우거진 숲에서 두 세 가정이 함께 모여 정착하기도 한다. 그들 의 집들은 대나무 껍질을 정교하게 엮고 짚을 얹어 만들어진다.

레프차인들은 목공품이나 방적

업, 방직을 전문으로 하기도 한다. 성별에 따라 노동을 구분하지 않아 서 남자가 방적을 할 수도 있고 여 자가 천을 짜며 또는 반대로도 가 능하다. 남성과 여성은 들녘에서 나란히 일한다. 또한 부탄의 시골 주민들은 세금을 전혀 안내거나 약 간 지불하지만 지역 봉사에는 임금 없이 노동력을 제공해야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프차의 가 족단위도 변화했다. 한 세대는 남 편과 아내,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 족에서 시작하곤 한다. 그 후 아들 이 결혼하면 신부를 집으로 들여 가족이 확장된다. 아들의 자녀들이 자람에 따라 그는 부모의 집 근처 에 자신의 집을 짓고 이사한다.

레프차인들은 신사적이고 살인 이나 절도 범죄가 거의 없이 평화 롭게 산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의 공격은 없어야 하고 모든 다툼 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신앙

레프차인 대부분은 그들 스스로 가 불교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두 개의 커다란 종교철학 즉 불교에서 유래한 '라마교'와 민속종교인 '먼 (Mun)' 종교를 좇아 행한다. 비록 모순된 점이 있어도 이 두 신앙은 동시에 믿어진다.

먼 종교는 조상신과 특별한 관계 성을 가진다. 동물을 바치고 귀신 과 대화하는 것은 영혼을 달래고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 되는 악귀 로부터 액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히말라야 빙하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예티"(Yeti, 무 시무시한 눈사람)는 사냥꾼의 하나 님으로, 모든 산악지역의 주인으로 써, 모든 숲을 지은 조물주로 경배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마이스트들은 동물을 바치는 것은 지독한 죄악이라고 한다. 그 들의 종교는 환생(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계속되는 반복)에 근거하

고 있고 그들은 현재의 수고가 다 음의 인생에 상이나 벌로 나타난다 고 믿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수질오염은 부탄에서 가장 심각 한 환경 문제 중의 하나로 시골지 역의 70%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인구의 대부 분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 부 탄은 1974년까지 관광을 위한 개 방을 거부해왔지만 매해 방문자의 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문화"라 불 리는 군주국을 보호하려는 차원에 서 위성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불교권 정부는 외국 종교나 서 방 종교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중보기도는 부 탄이 복음에 열리도록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고 대천덕 신부 부인 현재인 사모 별세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영성공 동체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 덕(루벤 아처 토레이) 신부의 미 망인인 현재인(제인 그레이 토 레이·사진) 사모가 6일 오전 미 국 코네티컷 주의 자택에서 별 세했다. 향년 92세. 현 사모는 지



난해 3월 뇌종양으로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한 뒤 차도 가 보이지 않아 5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으 나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

유족으로는 삼수령프로젝트 책임자로 있는 아들 벤 토레이 목사와 버니와 옌시 등 두 딸이 있다.

현 사모는 1948년 대신부와 결혼한 뒤 1957년 선교 사역을 위해 남편과 한국으로 건너왔다. 1965년에 대 신부와 예수원을 설립한 이후 평생 그곳에서 머무르 며 방문객들을 섬겼다. 한국에 오기 전 미 전역에서 60 여회의 전시회를 가진 역량 있는 화가였다. 샬럿시 퀸 즈대학의 메이퀸으로 뽑힐 정도로 미모의 소유자였던 현 사모는 과거의 영화를 모두 내려놓고 한국의 복음 화와 한국인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했다.

예수원에서 30년 남짓 생활하며 현 사모를 지켜본 민경찬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사람들 을 섬겼던 온전한 하늘의 사람"이라고 고인을 추모했

KCM, 세계 종교지도 등 4종류 제작

한국컴퓨터선교회(KCM)가 2011년 세계선교지도 (2011년 발행)에 이어 올해 새롭게 4종의 세계지도를 출시했다('http://kcm.kr/map2012' 참고). 그 4종류 는 △세계종교지도 △세계지형지도 △만국기 세계선 교지도(+퍼즐) △만국기 세계지형지도(+ 퍼즐).

이번 세계지도의 특징은 최신자료를 이용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독립한 남수단의 국가경계가 표시돼 있으며 2010년에 해체된 네덜란드 안틸레스는 쿠라 카오, 신트마르텐 등으로 구분해 표시했다. 또한 기존 의 타사 세계지도는 일반적으로 메르카토르 도법(극

Internet News

위도간격이 넓어 져서 나라의 크 기가 심하게 과 장되는 단점이 있음)을 사용하



고 있는데 비해, 이 지도는 플레이트 캐리라고 하는 도 법을 사용해 적도지방이나 극지방이나 위도의 간격이 같아 나라 크기의 왜곡이 적다.

대륙 지역 구분은 C.I.S.(CI), 유럽(Eu), 아프리카 (Af), 중동(ME), 아시아(As),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OP), 북아메리카(NA), 중앙아메리카(CA), 남아메리 카(SA) 등 총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도에 굵은 점 선으로 구분시켰다. 또, 전 세계의 국가(독립주권국과 미독립/특수지역을 포함)를 240개 국가로 나누어 대 륙구분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를 표시했다.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지역(예를 들어 군부대 만 존재하는 섬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의 국기를 실제 비율로 지도의 아래 부분에 나 타냈다. 일반적으로 국기의 비율은 우리나라 태극기 처럼 3:2의 비율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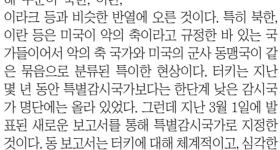
특별히 세계종교지도는 세계 각 국가 및 지역의 주 종교를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지도입니다. 전 세계 의 주요 종교 분포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색으로 구 분돼 있다. 주요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가톨릭), 정교, 유대교, 중국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토속종교, 유사기독교, 무종교 및 기타로 구분했다.

또 주요 종교인구별 대륙 분포를 원그래프로 지도 내에 수록해 해당 종교가 어느 대륙에 많고 어느 대 륙에 적게 분포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세계인 구의 종교별 분포, 대륙별 분포를 원그래프로 나타내 게 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 터키를 특별감시국가 로

터키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벌이고 있는 미 국과는 긴밀한 군사 동맹관계이다. 그런데 터키가 이

번에 미국의 국제종교 자유위원회가 새로 발 표한 특별 감시국가 명 단에 올랐다. 적어도 이 위원회가 보기에는 터키의 종교의 자유 박 해 수준이 북한, 이란,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터키와 함께, 타지키스 탄 미얀마, 이집트,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 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투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 스탄, 베트남 등이 특별감시국가에 올랐다. 보고서는 터키를 특별감시국가로 격상시킨 이유로 소수종교 인 기독교가 꾸준히 차별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 다고 말했다. 터키의 종교적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 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이슬람 신 자인 터키인의 59%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답변한 다. 터키에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들이 공개적으로 모이거나, 도서류를 출판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불가능하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정부 기관이다.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과 양당 상하양 원 의원들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터키를 특별감시국 가 명단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격 론이 있었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반 대하는 측은 터키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사회 적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박해 사례가 충 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아 랍의 봄 현상을 겪은 나라들이 앞으로 새로운 체제 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터키가 이슬람과 민주주 의가 공존하는 하나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 도 지적되었다.

교회에서도 클리커 사용

텍사스 샌앤젤로의 사우스게이트 그리스 도 교회에서는 연례 행사인 성경대회에서 150개의 클리커를 사 용한다. 올해에는 6개 교회에서 온 초등학교



와 고등학교 팀이 창세기에 대한 1,322개의 문제를 풀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클리커를 사용해서 180개의 다문항 문제에 대답했다.

성경대회 진행자인 던 스탠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 는 '가계도'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령, "다음 중 라아 마의 아들은 누구인가?" 클릭: a. 드단, b. 엘리사, c. 마대, d. 하윌라, e. 메세크(정답은 a)

클리커가 유용성 때문에 인기를 끌자, 실시간을 대 답을 기록하고 표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설비를 갖추 는데 약 250달러가 필요한 이 장비 자체의 미래가 불 확실해졌다. 클리커 회사들이 진부화(사람들이 새 것 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얼마 지나지 않아 진부해도 록 상품을 제작하는 것)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폴 에브리웨어 사의 소프트웨어는 참가자들 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로 대답을 하게하고 있다.

호놀룰루 소재한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쉽' 복음 주의 교회의 웨인 코르데이루 목사는 클리커의 팬이 다. 코르데이루 목사는 예배 중에 성도들이 스마트폰 을 몰래 몰래 본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는 가끔 설교 중간에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위에 "만약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a. 혼외정사를 하겠다, b. 마 약을 하겠다, c. 살인을 하겠다. 답을 고르시오. 익명 보장"과 같은 다문항 문제를 띄운다.

그는 대답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 섞인 웃음 과 헉 소리가 교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코르데이루 목사는 그가 단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 라갈 뿐이라고 설명한다. 가버나움 언덕에서 수천 명 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께서는 시몬으로 하여 금 노를 저어 강 위로 가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마이크가 없었으니, 만을 천연의 원형 극장으로, 물을 증폭 장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때 쓸 수 있었던 기 술을 쓰셨던 거죠"라고 말했다.

클리커를 만드는 많은 회사 중 두 회사가 10년 동 안 9백만 개의 클리커를 판매했다. 클리커의 가격은 통상 대 당 30달러 내지 40달러. 그 중 한 회사인 터 닝 테크놀로지에서는 2011년에만 150만개의 클리커 를 팔았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이스패닉 ' 라티노 아닌 출신국가로 불러 달래!

http://www.chpress.net

퓨히스패닉센터, 스패니시 사용 미국인 정체성 설문 결과 보도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는 미 국인들 중에서 스페니시를 사용 하는 국가들이 모국인 이민자들 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사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정부 기관 에서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로 이민 자들을 지칭하고 관리해왔다. 그 러나 오직 24%만의 히스패닉 성 인들만이 이 용어 사용에 찬성하 고 있고 대다수는 자신들을 자신 들의 모국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고 최근 퓨히스패닉 센터 는 보도했다(When Labels Don't Fit: Hispanics and Their Views of Identity).

남미나 중미계 미국인들은 자신 을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로 구분하 기보다는 태어난 나라, 또는 미국계 로 불리길 원한다. 푸에르토리칸, 엘 살바도리안 등 출신국가 구분으로



불리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

퓨 히스패닉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는 자신이 히스패닉계나 라티노로 구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오직 4분의1 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21%는 미국인으로 불리길 원했다. 왜냐하면 남미나 중미에서 태어났

다 하더라도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을 와서 출신국가의 정치와 사회, 문 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히스패닉 이나 라티노로 구분되는 것을 불편 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196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 한 멕시코계는 정치를 반영해서 자 신을 "치카나"로 불러주길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멕시코 이민자들은 다른 남미계와 달리, 자신들의 고국 인 멕시코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자 긍심이 상당하다.

Λ

Λŀ

미국정부는 1970년대에 멕시코 와 쿠바, 중미와 남미 국가 출신을 히스패닉이라고 구분했다. 그러나 미국 남서부 국가 출신들은 해당되 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대 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라티노라는 구분도 추가했다. 그러나 그것도 정 치, 사회 변화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 는 게 대부분 현재 미국에 사는 히 스패닉과 라티노의 시각이다.

따라서 자신을 라티노나 히스패 닉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 남미 출신들이 많다는 게 이번 조 사 결과이다. 정치, 문화적인 차이 는 물론 때로는 서로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같은 히스패 닉이나 라티노로 구분되길 싫어한 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서류미 비 미국인이라고 구분하는 젊은이 들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통점은 거의 모 든 중미, 남미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민자 의 거의 80%는 또 다시 이민의 기 회가 있다면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 라고 답했다.

전에 현실 정치는 샌토럼 후보에게 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에서 '기 독교 보수주의' 또는 '기독교 우익'의 미래는 다시 새벽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신앙과 삶에서 신앙인으 로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 인 가치관들을 정치 현장에서 천명 하고 있는 릭 샌토럼 후보가 존재하

따라서 미 언론은 2012년 대선보 다는 2016년 대선을 기약한다. 이제 는 더 이상 정치 신인이나 경륜 부족 이라는 이유로 현실 정치에서 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를 개혁 할 수 있는 거인으로, 샌토럼 후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회심과 기독교교육"

저자 정신애 박사

회심과

정신애 박사(트리니티 크리스 천 칼리지 겸임교수)가 본지에 연 재했던 "한인 1.5세 친구들의 회심 이야기"가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책 제목은 "회심과 기독교교육"으 로 "한인 1.5세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다. 정 박사는 현재 본지에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 이야기"라는 제 목으로 연재하고 있다.

정 박사는 본지에 칼럼을 게재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이 책이 기독교 청소년 교육을 공부 하고 또 실천하는 모든 동역자들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회심의 자리를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소명 을 주신 한인 1.5세를 포함한 우리 청소년들의 삶과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감히 소망해 본다"고 본 서의 출 판이유를 밝혔다.

한인 1.5세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

본서를 추천한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는 "정 박사의 연재가 한인 동포사회에 인기 있는 주제였다"고 밝히고, "청소년들을 교 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심이 이뤄져야 함에 동감한다' 며 교회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학자 정 박사를 소개했다.

책은 첫 번째 이야기: 회심과 기독교 교육, 두 번째 이야기: 한 인 1.5세들의 경험과 삶, 세 번째 이야기: 회심의 양상, 네 번째 이 야기: 교회와 회심, 다섯 번째 이야기: 회심경험의 테마, 여섯 번 째 이야기: 회심을 위한 기독교 교육, 일곱 번째 이야기: 한인 1.5 새 회심교육의 현실적 이슈들로 나눠져 있다.

총 202페이지, 킹덤북스에서 출판했다.

저자 정신에 박사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대학원)를 졸업하고 도미, 칼빈신학교(M. C. E), 프린스턴신학교(M. Dīv), 가렛 이반젤 리컬 신학교(PH. D)를 졸업했으며 지난 11년간 미국에서 주일학 교 및 청소년 EM 사역을 담당하면서 트리니티 크리스천칼리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귀국해서 한동대학교에 출 강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3면에서 계속〉

따라서 51%의 지지자들 중에서 80% 이상이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도 투표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진보와 보수 양극간의 힘겨루기이기 에 미지근하게 중도를 표명하는 유 권자는 롬니 후보에 비하면 작다.

따라서 바나 리서치는 오늘 민주, 공화 양당 간의 후보를 지지했다가 11월 대선 시에 지지하는 후보를 변 경할 수 있는 가하는 설문에서 샌토 럼 후보만이 오바마 대통령과 동등 한 지지를 받고 있다. 깅그리치 후보 는 13%, 롬니 후보는 23%를 샌토럼 후보에게 뒤쳐진다.

만약 현재 공화당 경선 구도처럼 롬니 후보의 대세론이 탄력을 받아 대권 주자가 돼 오바마 대통령과 한 판 승부를 벌인다면 47%의 유권자

들은 11월 선거 당일까지도 지지도 를 바꾸어 상대방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결과가 흥미롭다. 한마디 로 보수성향의 공화당 주자로서 롬 니 후보의 차별성이 샌토럼이나 깅 그리치 후보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 이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미 성인 인구 중 7% 정도에 해당되고, 언제든 지 지지하는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10%정도를 차지한 다. 따라서 이들은 공화당 후보가 누 가 되느냐에 따라서 불과 3-5%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드시 투표하겠 다는 결의를 보인다. 그러나 샌토럼 후보에게는 거의 70% 이상의 복음 주의적 크리스천들이 몰표를 던지고 있다. 그만큼 자신들의 신앙이나 이 념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로 샌토

그러나 현실 정치의 벽은 아직 샌

토럼 돌풍이 무너뜨리기에는 높기 만 하다. 즉 샌토럼 후보가 신인으로 서 강세이긴 하지만 경륜이 부족하 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 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롬니 주지사 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을 박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11월 6일 치러지는 오바마 대 통령과 공화당 후보 간의 경합은 진 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된다. 공화당 일각에서 내놓고 있는 "본선 경쟁력"이 과연 주지사와 기업 인으로서 성공한 롬니 후보에게 있 는지, 아니면 공화당이 표방하고 있 는 미국 정치의 보수적 이념이나 원 리들을 실천할 수 있는 샌토럼 후보 에게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뽑기도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제리 팔웰, 제임스 답슨 목

고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선교회

Tel. (213)559-7728 / Fax(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C. #6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얼바인침례교회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창대교회

加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

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천양과 경배)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예배: 오후4:00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와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터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15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은혜한인교회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수 요 에 메 · 소수 7:00 금 요 예 배: 저녁 8:0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방주선교교회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916)482-8800,4960/ Fax(916)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



Tel.(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인랜드교회



www.inlandchurch.org Tel.(909)622-2324, Fax.(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213)413-1600, (F)(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동문교회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주일에매 4구: 포구 1:00.0 청,장년영어예배: 오전11:30 오후 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어) 중고등부성경공부: 오후 4:00 수 요 찬 양: 오후 7:30

www.gpc.com Tel.(909)388-2940, Fax(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Tel.(323)939-7323, (F)(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714)826-6245, (F)(714)826-6187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Tel.(714)891-2029 / Fax.(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교: 오전11:00 수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담임목사: 정상호

담임목사: 김바울

구글2구에에: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당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삼성장로교회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브리지교회 🚮 담임목사 : 장세정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요셉선교교회

Tel.(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토렌스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재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내벽기도회: 오전 5:15(월,금)

Tel.(818)363-5887, Fax.(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윌셔크리스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30(전통) 자료4구에메·도우 2:00(디급국단공)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4272, Fax(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8



84. 왜 창조과학자의 주장은 학술지에 없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 을 한다. "왜 창조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은 학술지에 없을까? 창조과학 자들은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못한 내용을 주장하는 비전문가들 아닌 가?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라면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다 틀렸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 지다가 답을 못 얻으면 창조과학을 적대시 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의문들은 과학과 학계의 상황 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다. 과 학 교과서에서 취급하는 내용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 한 가지 지 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학 지 식이다. 이런 지식은 관찰가능(observable), 실험가능(testable), 반 복실험가능(repeatable)한 지식이 다. 이런 지식 덕분에 우리는 의약 품이나 전자기기 등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런 류의 과학 지식이 아닌 정보 도 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인데, 신 문이나 TV 등 미디어의 과학 기사 나 교과서에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 즉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 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화 론적인 설명들이 들어 있다.

전자의 지식을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이라 부르고 후 자의 지식을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 혹은 기원과학(origin science)라고 부른다. 진화론과 창 조론은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한 역 사과학이다.

실험과학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자 들이건 진화론 과학자들이건 별 이 견이 없다.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이론의 사실 여부를 현재 혹 은 내일 실험을 통해서 확인(증명)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험과학적 인 내용은 모든 과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실험 과학 분야의 연구에는 6일 창조를 믿는 창조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 이 Nature나 Science같은 세계 최 고의 잡지에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의학이나 공학 기술 분야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실험과학 적인 지식은 창조론 과학자들이 알 아낸 것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진 화론만 가르쳤던 미국이지만 아직 도 창조과학자들의 수는 아무리 적 어도 10,0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한 다. 실험과학을 하거나 기술 발전에

진화론은 전혀 필요가 없다.

과학자의 역사과학 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1월 24일자 한 인터 넷 신문에 "온난화 주장 학자들 '반 대파 축출' 공모"라는 제목의 기사 가 났었다. 지난 13년 동안 지구온 난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 는 학자들의 논문을 싣지 못하게 압 력을 행사하고 학계에서 밀어내려 는 과학자들의 음모가 담긴 160메 가바이트의 이메일이 해킹되어 세 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음모와 는 비교할 수 없게, 아예 공공연하 게 창조론자 혹은 진화론 비판자들 의 연구논문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 이고 어떤 연구자들은 직책에서도 해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이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 라는 기록 영화(2008년, DVD 구 입가능)로 나왔을 정도다. 이런 이 유로 창조과학자들의 역사과학적 인 연구 결과들은 Journal of Creation, Creation Research Society Quarterly Journal 등 창조과학 전 문지에만 발표되고 있다.

역사과학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실 험과학 분야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 던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와 진화 론과학자 두 그룹으로 선명하게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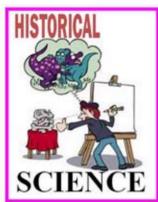
되었다. 결국 창조과학이 반(反)과 학(anti-science)이 아니라 진화론 이 반과학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 론 쪽에 선다. 역사과학은 사실(실 험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신학자 들과 진화와 창조 전문가가 아닌 많 은 과학자들은 다수의 과학자들이 틀릴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창조과학이 옳다면 그 많은 과학자들이 틀렸다는 말인 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한다(창조과학자들도 박사학 위 소지자들이라는 생각까지는 못 하는 것 같다). 결국 성경에 근거한 창조과학의 설명이 훨씬 논리적이 고 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사람의 생각인 진화론을 믿거나 성경과 타협을 시 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속이는 자의 아비인 사탄은 오늘 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냐고 충동 질 한다. 반과학인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게 하고 그 새빨간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예수 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 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교과서에 진화론만 들어있는 것과 같은 자연주의 원리로 진화론을 비판하거나 창조론 옹호하는 논문은 기각 당해"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과학

실험과학이 아닌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다 가정과 믿음에 근거한 과거에 대한 설명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일반 학술지에 연 구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는 그 내 용이 실험과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과학에 대한 경우다. 교과서에 실험과학 지식과 역사과학 지식이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일반 학술지 에도 실험과학 분야(section)와 역 사과학 분야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역사과학 분야에서 는 성경을 옹호하거나 창조과학 혹 은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를 주장하는 연구 논문은 철저하게 배 제되고 자연주의적인 설명만 수용 된다.

교과서에 진화론만 들어가 있는 것 과 똑 같은 원리(자연주의)로 진화 론을 비판하거나 창조론을 옹호하 게 되면 그 논문은 기각되고 만다. 그런 이유 때문에 Nature나 Science같은 세상 학술지에서는 창조

리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일까? 역 사과학이란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 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이 관여하게 된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지나 간 역 사를 설명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러 므로 많은 가정(믿음/세계관)이 들 어가게 된다. 창조과학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증인이므로 성경을 기반 으로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 거나 모델을 만들게 된다. 진화론의 경우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인 하나님을 배제하고(자연주의) 사람 이 경험했던 물질적인 지식으로만 역사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낸 설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확실한 물질의 법칙인 열역 학 제 1법칙과 제 2법칙을 정면으 로 위반하는 빅뱅이론과 진화론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 니라"(요8:38). 세상 아비 말에 귀 를 기울인 많은 크리스천들마저도 진화론이 지지하고 있는 동성결혼 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이 없다고 지 적하기까지 한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증인이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 사가 환하게 보인다. 인간이란 무엇 이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 렵게 되었고, 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떠나서는 내 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은 부조리 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 떻게 되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 지,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전혀 답 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십억 년의 긴 시간과 진화론에 물든 갖가지 창조 이론들도 앞에 언급한 중요한 질문 들에 대한 답을 바꿔버리거나 희미 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지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에 상관없이 지구의 역 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 단 하나 만 사실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반 과학적이고 나쁜 열매들을 맺게 한 속임수 이론인 진화론 버리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위에 서기를 바란다. 교회의 참 된 부흥은 진리로만 가능하다.

▲이메일:mailforwschoi@gmail.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퍼즐피스

갈라이아서 6장 8,9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햇살이 따뜻해지면 각종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을 때면 누구나 얼마 후면 심은 씨들에게서 싹이 나서 점점 커져 무 성해져 잎들도 따먹고 싱싱한 열매들도 따먹는 그림을 그려보며 기뻐 합니다. 저는 요즘 온 비로 인해 잎채소들은 춤추듯 무럭무럭 커줘서 집 에서 딴 오가닉 채소 따먹는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때 아닌 삶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각합니다.

씨를 심을 땐 콩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심은 데는 팥이 나오리라는 믿 음을 가지고 씨를 심습니다. 늘 그대로 되었기에 이를 의심하는 이는 없 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지독한 허무주의에서 비관하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때 세상적 안정된 삶을 바라보던 나는 죽고 예 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새로운 사명자로서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 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주님의 양떼를 찾아 돌보는 하나님나라의 선교 사, 대사다"라는 정체성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누구든 주님의 튼튼 한 양으로 세워주려면 그들의 눈높이와 맞추고 함께하여 그들과 이웃 이 됨이 첫 스텝이라는 사역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왼 뺨을 때리 면 오른 뺨도 내놓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하면 10리를 기꺼이 가주고, 억울하게 대신 죄도 뒤집어쓰고 오해도 받으며 모욕을 당하는 것도 감 내해야했습니다. 저들의 짐을 대신 져주었으나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 으며, 구해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원망하는 황당한 일도 너무도 많 이 만났습니다. 사역하며 탈진도 부지기수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사모 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물질의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적다고 이웃의 큰 교회로 가버린 이들이 자기들 돌봐줄 이는 사모님밖 에 없다고 교회는 다시 오지 않으면서 진만 빼는 교인들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오죽하면 나를 찾으리" 곧 마음을 추스리고 오랜 세월 주님의 양으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든든한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 다. 저들이 성숙해져 세월이 가니 이웃의 작고 큰 교회의 기둥들로 세 워져 은혜롭게 섬기는 것을 보며 감사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습이 네 상이다"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1976년 이후로 개척교회, 작은 교회만 섬기다 보니 안해 본 일이 별 로 없고 걸맞는 은사들이 개발되고 올인해 사용하는 바람에 '사역기 계'(ministry machine)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올인한 사역 중에 EM 사역이 있습니다. 1976년 첫 교회에서 EM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EM 을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을 거치며 지금까지 셀 수없는 EM사역자들 을 상담하고 멘토가 되어주고 연합사역 등 여러 모양으로 2세 사역에 임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저들의 사모님, 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역 에 다른 씨앗의 모습으로 복음을 심은지 이제 40년을 바라봅니다. 저 들이 미국 전역과 세계만방으로 흩어져 참으로 든든한 복음 전파의 사 역자들로 충성하는 모습을 대하며 긴 세월 과정은 힘겨웠지만 주님께 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가득

만약 제가 작은 교회사모라고 주눅 들고 내 교회 키우기에만 치중했 다면 오늘 설사 내 교회가 소위 대형교회로 성장했더라도 이런 큰 열매 를 거두는 기쁨의 날을 맞을 수 있었을까? 사역의 성취욕을 내려놓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함이 하나님을 제일 감동케 합니다. 환경에 좌우 되지 않고 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주님의 심장을 품은 하늘 선교사로 살았기에 나이의 담장도 넘고, 인종의 담장도 넘고, 언어의 장벽도 넘어 많이 심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러니 오늘 주님이 계속해 거두어들 이시는 열매를 함께 따는 게 아니던가. 주님의 복음의 씨앗은 썩는 것 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충성하면 반드시 때가 오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옴을 증거하며 동역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펜버한인장로교회

Tel (903)422-6050, Fex (956)452-6543 7755 Kipking St. Arvede, CO 85805

시에를팽강장로교회

TH (200)577-0581, Fax.(200)528-1745 4040 K.E. (200) St., Seentle, MA 20155

주에수교회

Tel (804)590-7595, Fer. (804)589-7514 10201 Robbon Rd, Richmond, VA 23235

단입목사: 김 유

단임목사: 박은일

주위에 되어: 요전 10:00 주위한학에서: 요전 11:16 소요되나라와: 요든 7:30 과학자도와: 요전 8:00점 -급) 요요합: 요전 8:30

답임목사: 백련찬

주합(14대체: 오전 8:00 주합(20대체: 오전 8:30 주합(20대체: 오전 11:00 주합(4대체: 오픈 1:15 수보건점: 요주 8:00 세탁기도: 모든 8:00(조)



단일목사: 조용점 주입낮에록: 모전 11:00 주입자하천합에록: 요휴 7:00 수요거도록: 오후 7:30 서비기도록: 요즘 6:00(표 -도)

Tel (705/679-7578, Fax (702)257-9191 8564 W. Decert Inc., Rd., Law Vegac., NV 89146



답임목사; 여영성 주입1부에에: 오건 8:30 구입2부에에: 오건 10:00 주입3부에에: 오건 11:30 주입4부에에: 오주 12:50

Tol.(410)337-6448, 842-0181, Par. 337-6448 1850 Sentimery Ave., Wood, Lather-the, 440 71583

온누리교회 답임목사: 김성한 주입상에로: 오전 11:00 수술에로: 요추 7:00

The (254)454-47715, (254)501-492) 408 N. 8th St. Killman, TX 76547



pere (typesz, com Tul (480)725-0151, Faz (480)667-3027 1160 2, October Rd, Chandler, AZ 85286



답입목사: 송성설 주립1부이라: 모전 \$130 주립2부이라: 요한 11:00 수요하다: 오후 5:00 금요하다: 오후 8:00 시키기도의: 주말 \$100 주말학교리의: 오후 11:00

Tel (704) 841 5621, Per (704)841-1625 8416: (704)865-4412 3616 McKee Rd, Charlotte, NC 28270 재시온침레교회 답입목사: 정용교

주의(부대왕: 오전송: 30 주일2부대왕: 오전 10:00(영6) 주일3부대왕: 오전 11:30 수요한3학계: 오주 7:00

Thi (905)455-6151 2007 Pacific Are, SE P. C. DOX 8350 Lacey, WA 98305

워싱콘머시야장로교회 답입목사: 한세영

주됩1부이라: 오건 8:00 주됩2부이라: 오전 11:00 여덟3부이라: 오픈 1:30(급) 수요에는 오쿠 2:00 음요기부의: 오쿠 2:00 서역이라: 요건 5:30(를 포)

Tel (703)361-440, Per (703)361-4445 4913 Merithus St. Agnesdain, VA 22003

담임목사: 감선만 주입하수이라: 오픈 8:30 수입2수이라: 오픈 10:00 수입3수이라: 오픈 12:00 수요에를 오후 7:45

Tel. (1882)643-4738, Fax (890)674-0666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세계로들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최해군 주합(부대학: 요전 및 36 주합점이에학: 요전 후 30 주합본부대학: 요전 11:00 수요제학: 요후 8:00 합의기도학: 요후 8:00 학합시도학: 요전 8:00 학합시도학: 요전 8:00

Tel (610)222-0601, 267-671-7777 Fax (610)222-0632 3250 Morris Rd, Lanedain, PA 19445 알칸사 제자들교회 답답목사: 전남수

Tel (1901) 270 - 6025. AND (1901) 425 - 6175 605 Kirby Roi, Libric Rock, AR 72211 **** Joint, Cont.

큰무리교회



www.josephavislon21.org 原資用何7从最,至,平型) Tel. (410)209-0516, Fax. (410)203-6612 3264 Corporate Court Efficial City MD 21042

아가메선교침레교회 담임복사: 이남수 주입(학회학: 2년 9:00 주입2구회학: 오후 11:30 주입2구회학: 오후 1:30 수요산업이학: 오후 7:00 서학기도학: 요년 5:30(후~표)

To.(806)735-0011 1536-A Pololo Ave. Honotzie. Hi 96316

백스카운티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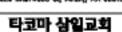


Tel (215)645-1512, Fax (215)645-2065 1550 Wookerne Rd., Levitown, PA 19057



담임폭사; 유재임 주입1구세대: 오전 10:00 주입2구세대: 오전 11:00 Q 6 4: 22: 11:0 추일되어에요: 오후 2:00 수요대체:오후 7:00

Tel (907)366-6560, Fex (907)366-7187 8200 Diterrepoi St., April., AK 98518





Tel. (253)565-1000 7461 S, Verdo St, Tesseno, IEA 90406

에덴장로교회 담임꼭사: 송창현 주립점이에의 요한 # 00 수업점이에의 오전 11-00 수요대를 오루 7:00

(47年年: 2世 8:30年-年)

Tel. (908)1739-1004, Coll. (808)218-4692 1063 9th Ave., Runskik, NT 98818



답입목사: 집용책 주입14세계(하: 오건 7:00 주입24세계(하: 오건 8: 15 주입24세계(하: 오건 11:30 주입4세계(하: 오랜 11:30 주입4세계(하: 오쿠 11:45 (8:40세): 오랜 10:30 수요에에: 오쿠 8:30 서버기드로: 오픈 8:30(84—2) Tel (41)461-1295, Fee (410)491-4829 5165 St. John Lann, Effort City, ND 21042

엘파소열린문교회

Tel., 22(915)755-1480, 15(45)5751-4365 SATE Ather Are, 57 Peac, TX 75504

타코마사생명교회

Tel (253)535-6807, 531-8424 Flox (253)536-1453 5702 E. B St. Taoman, WA 58445

하와이 한국교회

Tel. (206)277-2598, GST-1778, 642-2922 1961 S. Bersteste St. Hen., Ht 96816

답입목사: 임규영

담임복사: 김순관

수요기도록: 오루 7:30 시네기도록: 오윈 6:00(독)

주일하다: 오픈 11:00 주일하다: 모든 11:00



답입목사: 전력영 주의한국어에는 요한 11:00 한경에서를 요한 11:00 세계 도쿄 : 오면 600 교육 보기 : 오면 600 대한생산 : 모두 8:00 대한생산 : 모두 1:00 대한생산 : 모든 10:00 대한생산 : 모든 10:00 Tel: (556)425-4570, Fex: (556)435-546 2 Main St. Hosterlen, MA 07748

보스턴장로교회



답입목사: 이용경 주장 무에요 오픈 7:30 주장부에요 모든 5:30 주장부에요 모든 12:00 주장부의 문에요: 오픈 7:30 수요해? 오픈 800





탁코마 한인장로교회 답입목사: 감수명 1부명하여자: 오전 1:30 주합생대학: 요전 11:00 수업자업학: 오전 1:00 수요자학: 오후 7:00 결요합기대학: 요후 7:00 세약기대학: 요주 7:00 세약기대학: 요주 7:00

Tel. (255)530-6675, Par. (255)474-6515 8424 S., Takina Are, Taoresa, WA 98446

文集문무한인장로교회



독일(부대대: 모현수(0) 호텔(부대대: 모현 11:00 호텔(부대대: 모현 11:00명이) 호텔(부대대: 모현 11:00명이) 호텔(부대대: 모현 11:00 호텔(보대: 모현 11:00 공임(보대: 모현 11:00

Tel. (806)647-6262, Fax (806)647-6151 www.hanalitherch.org 2122 Metcall St., Hanalida, NJ 98822

중국정부는 탈북자 북송 전면금지하라!

http://www.chpress.net

LA 중국영사관앞 시위기도회 평화행진 300여명 참여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 전면 금지 및 난민 협약준수 촉구를 위한 시위 기도회 및 평화 행진이 10일 정오 전 세계 50개 도시 중국 대사관 및 영사 관 등 중국공관 앞에서 갖고 중국정 부가 탈북자들의 북송금지와 난민 협약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이번 공동 행사에서 나성영락 교회 박희민 목사,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송정명 목사, 워싱톤 중앙 로교회 이원상 원로목사, 베델 한인교회 담임이자 KCC 대표간사 인 손인식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구 성된 '해외 300인 목사단'과 탈북자 북송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시민들 이 참여하여 기도회와 함께, 피켓과 배너를 들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북

을 가했다.

LA지역에서 열린 행사는 LA 중국 영사관 앞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중국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 해 규탄하고 더 이상 비인권적인 탈 북자 체포와 북송을 중단하고 세계 리더 국가의 책무를 다해달라는 목 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 언어로 진행됐는데 송정명 목사와 김성환 변호사의 개회사, 김인식 목 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정유성 목 사의 인도로 이날 참가자들이 함께 'Let My People Go!'를 불렀다.

이어 박희민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렌드밀러 씨와 김인식 목사가 1분 스피치를, 장창호 목사와 박병기 목 사가 한인디아스포라 호소문을 낭 독했으며 손인식 목사와 조철희 목 사가 UN을 향한 호소문을, 김영빈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 전면 금지 및 난민 협약준수 촉구를 위한 시위기도회 및 평 화 행진이 10일(화) 정오에 전 세계 50개 도시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 중국공관 앞에서 일제히 열렸다. 사진은 LA중국영사관 앞에서 평화시위행진을 하는 모습.



제76회 예장미주서부노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예장미주합동 서부노회 새노회장에 신상원 목사

제76회 정기노회, 부노회장에 강평근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미주서부노회(노회장 지윤성 목사) 제 76회 정기노회가 지난 9일(화)

해돋는교회(담임 정갑식 목사)에서 개최돼 신임 노회장에 신상원 목사 (빌립보교회), 부노회장에 강평근 목사(부활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신상원 목사는 "어려운 때

귀한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노회원에게 감사하다. 노회를 위 해, 복음위해, 교회위해, 노회원들 과 함께 노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 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 도록 열심히 섬기겠다"고 취임소감 을 밝혔다.

이날 노회는 신상원 부노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 곽부환 회 의록서기가 성경봉독을, 지윤성 노 회장이 '주님의 향기를 발하자'(고 후2:12-1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정갑식 증경노회장이 축도 했다. 이어 임영호 부서기의 집례 로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지윤성 노 회장의 사회로 회의에 들어갔다. 또 신상원 신임노회장의 사회로 폐회 예배를 가졌다.

한편 오는 6월 12일(화) 오전 10 시 예장미주합동총회가 같은 장소 인 해돋는교회에서 열리게 되며 12 일부터 14일까지 수양회가 개최된 다.

〈박준호 기자〉

는 특별 야외공연이 'A Living Hope Easter Sunrise Celebration Service'라는 주제로 부활주일인 8일 새 벽 5시 1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 운데 생생하게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크라운밸리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무어(Joel Moore) 목사의 초청 메시지에 이어 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주요사역 과 고난과 부활을 현장감 넘치게 공 연했다.

인근 지역 5개 미국인교회가 공동으 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5개 교회 담 임목사가 매년 교대로 초청메시지 를 맡으며, 모든 출연배우는 각 교 회 성도들 중에서 자원해 참여하고

〈정리: 박준호 기자〉



목사, 댄 남 목사, 김요셉 전도사가 '

이어 중국영사관 주변을 도는 평화

행진을 가졌으며 통성기도 후 박희

특별한 부활절새벽야외공연

매년 부활주일 새벽에 산타 클라리

타 지역에 위치한 아구아 둘세 캐

년(Agua Dulce Canyon)에서 열리

〈박준호 기자〉

탈북자 송환금지구호'를 외쳤다.

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산타 클라리타 지역에 위치한 아구아 둘세 캐년(Agua Dulce Canyon)에서 특별 야외 공연이 'A Living Hope Easter Sunrise Celebration Service' 라는 주제로 열렸다.



APU LA캠퍼스에서 열린 고 정진경 목사 도서 헌정식 행사에 참가한 자들이 단체사진 을 찍고 있다.

아주사퍼시픽대 도서 헌정식

고 정진경 목사 소장도서 2천권 기증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월레스 박사)는 고 정진경 목사 도서 헌정식을 4일 오후5시 LA캠 퍼스(디렉터 클로이 비니 박사)에 서 고인의 유가족과 총장, 수석 부 총장 등 학교스탭들, 그리고 허경삼 목사, 이기홍 목사 등 고인의 친구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헌정식은 고 정진경 목사가 APU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장 했던 도서 2천권을 APU에 기증하 면서 갖게 됐다.

고 정진경 목사의 아들인 정인찬 목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생 각지 못했었는데 돌아가신 후 아 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듣게 됐다. APU에서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APU 겸 임교수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 회 원로)는 "고 정진경 목사님은 한 국교회 리더셨고 신학자 목회자 설 교가로 훌륭한 삶을 사셨다. 이번에 고인이 사용하던 도서가 기증되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 고인을 기억하 게 되고 고인을 본받아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부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 날 헌정식은 클로이 비니 박사의 인 사말, 폴 그레이 도서관장, 데이빗 빅스비 수석부총장의 식사, 박희민 박사의 대표인사, 소프라노 김희경 의 봉헌송, 정인찬 목사의 가족대표 인사, 존 월레스 총장의 연설, 허경 삼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고 정진경 목사는 1921년에 출생 해 일제강점기와 공산 치하, 한국전 쟁으로 이어지는 질곡의 한국 근대 사 속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켜왔다 그의 최초 목양지는 1948년 공주성 결교회였고 마지막 목회지는 1991 년 은퇴한 신촌성결교회다. 1956년 아주사 퍼시픽대학교의 전신인 아 주사 퍼시픽 칼리지 입학, 1958년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입학, 1960년 귀국 후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15년 간 사역했으며 지난 2009년 고인이 소천하기 전까지 해마다 APU에서 한인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인도해왔다. 고 정진경 목사는 지난 2006년 APU에서 자랑스러운 동문 상을 받은 바 있다.

〈박준호 기자〉

"선교의 사명 마음에 새긴다"

HYM 제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21, 22일

남가주청년연합회 (HYM, 회장 더글라 스 김)는 오는 21(토) 일과 22일(주) 오후 7 시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사 명'(Mission Possible) 을 주제로 '제26회 청 년연합집회'를 개최한 다.

HYM 관계자들은 지난 5일 타운 내 소향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번 집회에 서 그리스도인의 정체 성을 깨닫고 '내가 여 기 있나이다. 나를 보

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고 밝히며 " 이번 집회는 각기 다른 교회에서 신 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한 자 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 도로 하나가 돼 하나님을 향한 사 랑을 불태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집회의 강사는 1.5세 목회자 로 동양선교교회에 부임해 분열됐 던 공동체를 눈물의 기도로 회복시 키고 영어예배를 만들어 직접 설교 를 하고 있는 박형은 담임목사와 남 가주사랑의교회에서 12년간 청년 부를 담당하며 젊은이들을 섬겨온 윤대혁 목사. 이들은 젊은 세대를 향해 뜨거운 가슴을 지닌 목회자여 서 이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글러스김 대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에게만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위의 사람 들에게 복음을 전할수가 없다"고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남가주청년연합집회를 소개하 고 있는 HYM스텝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보 담당 유영주 형제, 더글라스 김 대표, 행정담당 전정하 목 사, 예배담당 이슬 자매, 특송을 맡은 최윤영 자매.

말하며 "우리는 진정으로 썩어지 는 밀알이 돼야만 한다, 우리의 모 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 특송은 5명의 한인 선 교사 자녀들로 구성돼 음반을 내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크 리스천 밴드 '리빙 캔버스'와 2011 년 CBS 창작복음성가제 미주예선 에서 대상과 서울본선에서 금상을 받은 최윤영 자매가, 헌금송은 지난 2011년 MBC 방송국에서 개최한 오 디션 프로그램 위대한탄생 출신 허 지애 자매와 에스더최 자매가 각각 맡는다.

더글라스김 회장, 행정담당 전정 하 목사(행복한교회 담임) 등은 "지 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 고 영적으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 갈 때"라며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문의:(714)393-5135, (323)459 - 9832

〈박준호 기자〉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글로벌

제7회 세계여교역자 선교대회 4월 19-26일

제7회 세계여교역자 선교대회가 오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소재 라마 다LA컨벤션센터(1901 W. Olympic Blvd)에서 개최된다.

이번 선교대회는 미주 지역에서 열리는 여교역자 선교대회로 한국 을 비롯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목회하시는 여성 목회자 와 여선교사, 여성 교계지도자 등 100여명의 여성 교역자들이 로스앤 젤레스에서 '온 땅이여 평안하라!'(사14:7)는 주제로 '민족 간의 평화,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주장하며 선 교대회를 열게 된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국제여교 역자협의회(대표회장 박금순 목사) 와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 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본 대회 의 강사로 "제자입니까"의 저자 후

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쉐퍼드 신학 총장)를 비롯한 국내외 10여 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맡는다. 또한 선교대회 기간 중 한인동포

들을 위한 사라 코러스(단장 백사라 목사), 전예성 예술팀, 예빛 선교단 의 각종 기독문화 공연 행사와 궁중 전통 패션쇼, 평화행진 등이 진행된 다. 본 선교대회의 개회 예배는 4월 19일(목) 오후7시 본 대회장에서 가 질 예정이다.

국제여교역자협의회(대표회장 박금순 목사)는 2년마다 싱가폴, 마카오, 서울 ,필리핀, 이란, 하와 이등지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으 며 제 8회 대회는 2014년 프랑스 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 의는 (213)383-6800 또는 이메일 lakcbn@yahoo.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세계여교역자 협의회〉

세계로뭳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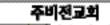
뉴욕켓서마터교회 달일목사: 이지용 주상에에 1부: 모건 8:00 주상에에 2부: 요전 11:00 주성산강에에 : 모두 1:30 수요시에서에 : 모두 8:30

Tel. (PM)484-2205, CHESTO-2205, For CHESTO-4805 45-75 Parsons Bird, Pleating, MY 19355 were specified as a SE 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목사: 방지각 1부여분이학 요전 7:15 2부대학: 요전 8:30 3부대학: 오전 90:15 4무대학: 권모 12:30 5부분(취약: 모든 1:30 연구 회사(원): 오후 3:30 7부분(취약: 교학 7:30 수요자(학학: 오후 8:30 서학대학: 서적 8:30(함-모)

담임목사: 문석호

Tel. (778)763-4756, 2525, Fax. (758)461-3111 42-15 1569: St. Flatting, NY 11356





Tei (719)757-6838, benyhee@nctmell.com 70 Planscom Rd, Machasast, NY 17030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뉴욕목양장로교학

답입목사: 송챙기 주됩1부대표: 보변 #100 취임구대표: 모든 11:00 취임구대표: 모든 2:00 수요원관교육: 모든 8:00 원유립자: 모든 8:00 세탁기도점: 요즘 8:46



Thi (718)361-9198, Fee (718)361-9433 40-05 Shibeen Are, Sunayaide, NY 11104 www.moskyang.org

주신장로교회 답입목사: 감용약

주됨1부대표: 경오 12:00 주됨2부대표: 요후 2:00 시작기도회: 오랜 5:30



Tel.(718)319-7081, 7082 189-12 72 for, Fresh Meedows, MY 11306



Tel, 2277–1450, Fez, 2203–9363 us Josephn Piza, 251 Carebuci 2, Paulo Cap 01028–910

담임복사: 하정남

Tel,011-55-11-3270-9233, 3277-5161 R, Librains Abnes 16 Liberciade SP CEP 01566



브라질 한인교회 단엄복사: 판봉원 무임(부에비: 요원 9:00 수입2부에비: 오전 15:00 추입3부에비: 오후 1:50 보다이터: 오후 7:00 수요이터: 요후 8:00 체비하는: 오랜 5:45

뉴욕빌라뗍비아장로교회

리빙스론교회

NJ (716961-217), Paz (716961-363) S7-67 104 St. Flunking, NY 11368

중부뉴저지장뽀교회

단입목사: 김혜원

주합(부여제: 오픈 8:00 취임(부여제: 오픈 11:00 취임(부여제: 오픈 11:00 취임(부여제: 오픈 2:00(함이) 취임(제3: 오픈 8:00(함) 등) 취임(제3: 오픈 8:00(함) 등) 취임(제3: 오픈 11:00

단입목사: 유상염

주입에는 오픈 10:50 주입에고 오픈 10:50 중입한성공문학 오픈 13:30 주입한성공문학 오픈 12:30 주입한2018부 오픈 130

답입목사: 이원호

뉴욕재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등아일랜드성결교회



THE PERSON AND MAKEUM, MY 1939 퓝즈장로교회



Tel. (7)(6)000-4040, Par. (7)(6)00-7703 149-17 Provide Are, Pleating, NY 11355 serv. (tapon, org 브라질 새소망교회



THE ISSUES STEEL, SERVE-1165 RISA SANTA RITA, 215-PARE-BAD PAULD-39-BRASS.

뉴욕순복음안디옥교



%7/WHAT - 7855. CP (718/458-1777 45-45 192 St. Panting, WY 11358 베다니교회



#2: 34 (873)694-3680, E#21(977)694-36 #2: 491 Alpu M. Heyro, NJ (37270 ##2: 430 Mets St, Port Lee, NJ 67034 민즈한인교회 답입목사: 이규설

답입목사: 장동환

Tel. (718)472-1150 89-60 23rd Ave, Sast Reskurd, NY 11390 www.qasenash,me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THISENIG-ESY-1798 AV, CARABOBO 1253, CAP,FED., E.S., A.S., ARRE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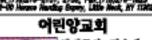
THE TRANSPORT THE SEASON OF THE SEASON OF THE SEASON PRINCIPLE BY THESE SEASON PRINCIPLE BY THE BY THE SEASON PRINCIPLE BY THE BY 뉴욕중부교회

기름과 영광교회



당임목사: 김재연 주입1부배배: 2년 8:00 주입2부배배: 2년 9:30 주입3부배태: 2년 11:30 수요해대: 오루 8:00 시대기도: 2년 5:4등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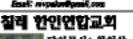






주실하여대: 오전 11:05 주설등이대대: 오전 8:30 수요전등이대: 오후 8:30 금요전문이대: 오후 8:30 시대기도화: 오전 5:30(출-로)

Tel (\$16)277-1103, Cell (917)623-0550 70 Selveri St. Gigs Core, NY 11542 Essel: respektifipsel, cos





Tel & Fax (682)555-7626, (682)341-0055 Sactions Curres - 3 Caelia 325 Chie



The CTHEAST - TOTAL Cold (SICTIMAN - 1851 41-57 Colonia Shell, Stretpelde, NY 11104 stree, calteroechisch, org



Tel.(758)050-5051, Fax (758)007-0570 75-17 Repeated Ave, Jackson Heights, MY 11372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미주크리스천신뿐 과 함께할 후원교회뿐 찾습니다



柳起 劉ル 碧堤。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Tel. (696)27-676-696 E-mail: herbylidhennek nel Cervenies NO, 1901, Atencion-PARAGUAY

워싱턴DC 빈민지역

환경캠페인 출정식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기 구인 GCS인터내셔널 워싱턴 지부

와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

사)가 공동 주관한 '2012 유엔 지구

의 날 봄방학 환경캠프'가 지난 2일

부터 6일까지 워싱턴DC 평화나눔

공동체에서 열렸다. 캘리포니아, 조

지아, 워싱턴DC, 해리슨버그(VA)

메노나이트고교 등에서 참석한 한

인 청소년들은 세미나와 워크샵 뿐

만 아니라 빈민지역 화단 가꾸기를

통해 환경지킴이로서의 많은 역할

참가자들은 국제 환경보호 캠페

인은 물론, DC 빈민거리 청소, 거리

화단에 꽃 심어주기, 노숙자들에게

생수 나누어주기, 노숙자 급식, 지

구환경자연학습, 유엔리더십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캠프와 온라인 국제 환경보호 홍보

운동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100시간의 지역사회봉사 활동 크레

딧과 유엔 국제기구들이 주는 '유엔

한편, 평화나눔공동체는 오는 6월

부터 8월까지 매주 한 주간 단기선

교 및 국제자원봉사활동 캠프를 제

공한다.여름캠

프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접수

를 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문의

는 (571)259-

4937, 이메일

appachoi@

gmail.com로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

하면 된다.

NGO 리더십상'이 수여됐다.

을 감당했다.

동부교계 게시판

제 3기 이민목회 맨토링 세미나

디아스포라이민목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제 3기 이민목회 맨토링 세미 나가 4월 24일(화) 오전 9시부터 25일(수) 오후 6시까지 뉴욕 퀸즈한인 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 대상은 이민목회자 20명으로 제한하며 참가비는 일인당 30달러. 접수마감은 4월 20일(선착순).

▲문의: (714)873-7315(김영빈 목사), (714)323-3931(류태우 목사)

정신건강 새 프로그램 개강

미동부생명의전화(김정국, 김영호 목사)가 정신건강을 위한 새 프로 그램을 준비한다. △분노 좌절 스트레스 조절교실: 5월4일-6월 8일 매 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강사 이수일 박사 △건강한 부모교 실: 5월 5일-6월 9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강사 이수 일 박사 △서예군자교실: 4월 30일-6월 4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 분-11시30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강사 최정자 선생 모집인원은 각 12명씩 회비는 일인당 95달러. 장소는 162-13 43Ave

▲문의:(718)213-8645

퀸즈장로교회 여름학교 등록시작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운영하는 2012 여름학교가 등록 을 받고 있다. 대상은 킨더가튼부터 12학년으로 ESL반도 있다. 기간은 7월 2일부터 7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한다. 조기등록은 4월 20일까지이며 수업료는 일인당 600달러.

▲문의:(718)886-4646

중국은 탈북자 북송 전면금지 하라!

뉴욕교협, 탈북자 북송반대 기도회/시위 및 서명촉구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10 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는 '탈 북자 북송반대를 위한 기도회 및 시 위'에 참여했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 전면 금 지 및 난민협약 실천촉구를 위한 기 도회/항의시위'라는 제목의 안건에 서 교협은 "탈북문제는 우리민족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 심을 받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적 으로 탈북자 북송반대라고 하는 연 대와 연합이 이루어져 여러 형태의 항의, 기도회, 콘서트, 북송 반대 시 위 등이 분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 한국 교회뿐 아니라 각 대륙의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열화와 같이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집회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협은 "우리가 모른 척 눈감고 있는 동안 지금도 중국 땅 어디선가 는 탈북 우리 동포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고 공포에 떨고 있 을 것"이라며 "방법은 하나, 우리가 나서서 중국정부의 저 비인간적 처 사에 항의하여 전 세계인들의 눈을 중국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참여와 서명을 당부했다.

한편 교협은 14일 금강산식당에 서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해 11일간 단식을 했던 박선영 의원과 함께하 는 조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회원교회들로부터 전달받은 탈북자 북송 반대 서명지를 박 의원에게 전 달했으며 이 서명지는 UN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쓴뿌리 치유...예수님 성품묵상에 전념

'맑은 영성학교2' 개강, 강사 이희녕 사모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새벽연합예배 뉴욕일원 각 지역교협 중심...뉴욕28, 뉴저지11 지역서

부활절인 8일 새벽 연합예배가 뉴 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뉴욕일원 의 교협 주관으로 일제히 개최됐다.

뉴욕은 28개 지역에서, 뉴저지는 11개 지역에서 각각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

뉴욕교협 양승호 회장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둔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신 이 기쁜 소식을 뉴욕과 미 국, 전 세계에 전하자"며, "예수 그리 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전쟁과 가난 과 눈물을 이기게 하는 소망임을 알 게 되길 소원한다"고 말하고 "마지 막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 는 발걸음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수백 명이 참석하는 사 순절새벽기도회를 7일 새벽에 마 친 퀸즈장로교회(박규성 목사)에서 는 부활주일인 8일에는 장영춘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활 의 주님을 환영하는 새벽 촛불예배 가 열렸다. 장영춘 목사는 설교를 통 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 는 사람들이 되자"고 강조하며 "예 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합 시다"를 온 성도들과 함께 외쳤다. 이어 오전과 오후에 부활주일 예배 가 드려졌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 호 목사)도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 치고 8일 새벽 5시30분 예수님의 부 활을 기뻐하며 전 성도가 촛불예배 를 드렸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 재도 목사)가 주관하는 뉴저지 지 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8일 오전 6시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유재도 목사는 "뉴저지 지역 성도들 은 가장 가까운 예배 장소로 참석해 교단과 교파를 넘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 기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지역별 설교자와 장소는 △1지역 설교: 김남수 목사 장소: 온누리장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 부활절새벽 촛불예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부활절새벽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기념촬영 했다(사 진제공: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로교회 △2지역 설교: 국남주 목사 장소: 땅끝교회 △3지역 설교: 안명 훈 목사 장소: 아콜라연합감리교회 △4지역 설교 정성만 목사 장소: 소 망교회 △5지역 설교 박상돈 목사 장소: 예수마을교회 △6지역 설교: 목동주 목사 장소: 뉴저지순복음영 산교회 △7지역 설교: 고석천 목사 장소: 영광연합감리교회 △8지역 설교: 소재신 목사 장소: 엘리자베 스한인장로교회 △9지역 설교: 장 동찬 목사 장소: 베다니연합감리교 회 △10지역 설교: 이기백 목사 장 소: 산돌교회 △11지역 설교: 나경 직 목사 장소: 찬양교회 등이다(뉴 욕지역은 본지 1378호 10면 참조).

한편, 뉴저지교협은 부활절 이후 9일~19일까지 사도바울 행적지 성 지순례에 나선다.

〈유원정 기자〉



출정식에 참여한 학생들

휄로십교회 비전채플 입당감사음악예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휄로십교회 (담임 제임스송 목사)가 설립 31주 년을 맞아 지난 25일 비전채플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해 사역 40주 년을 맞는 담임 송 목사는 미드웨스 트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날 예배 설교는 미드웨스트대 학교 미주총동문회 회장 강대혁 목

사(테네시 새에덴교회 담임)가 했으 며 강성일 브라질 선교사(세계한인 선교사회 상임대표회장)를 비롯 한 국의 윤항기 목사 등이 축하전문 및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음악은 미드웨스트 출신의 성악 가들과 동 교회찬양대가 담당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맑은 영성학교'에서 이희녕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본지 필자이기도 한 이희녕 사모 (뉴저지 복음장로교회)가 강의하는 '맑은 영성학교2' 뉴욕교실이 지난 5일 새순교회(담임 석중훈 목사)에 서 개강했다. 이번 강의에서 "예수 님의 성품묵상에 전념하겠다"고 밝 힌 이희녕 사모는 '맑은 영성학교' 의 신학노선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며 이번 강의는 '쓴뿌리 치유'가 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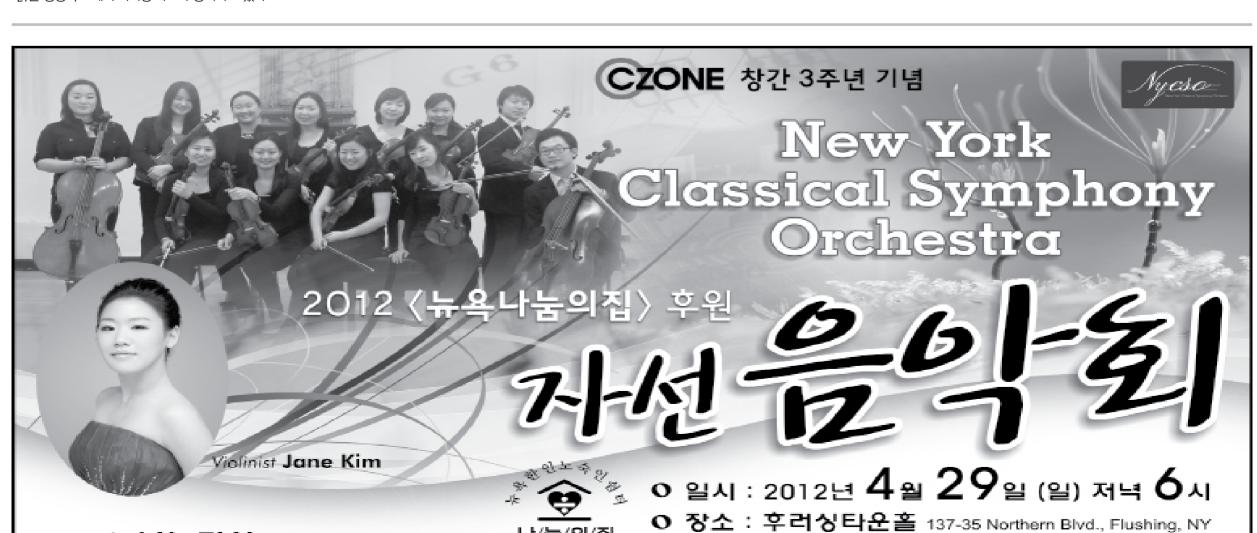
첫째 주는 쓴뿌리가 무성한 내 면세계의 실상, 둘째 주 선악과 묵 상/거짓 사고시스템과 진리 사고시 스템 비교 셋째 주 무화과 잎새 묵

상/쓴 뿌리의 시작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등으로 12주 동안 계속되며 마지막 영광스런 사명자의 삶인 베 드로 묵상으로 마치게 된다.

이 사모는 첫날 오리엔테이션 겸 개괄적인 소개로 영성학교의 사명 은 에스겔 뼈다귀(탈진 사명자) 군 대 일으키는 말씀치유사역이며 비 전/목적은 인물묵상훈련을 통한 말 씀을 내면화 하는 예수님 형상화라 고 소개했다. 또 마음중심 다림줄은 예수님의 성품훈련으로 하늘 복의 통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뉴욕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주 동안 계 속되며 뉴저지는 10일 산소망교회(담임 조영제 목사)에서 시작돼 동일 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유원정 기자〉



· 주관: 나눔미션 NANOOM MISSION INC.

・특별후원: 뉴욕 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NYCSO), SIA NY(국제예술가협회)

* **후원** :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욕일보, 라디오코리아, KCBN, KCTS, WMBC-TV, TKC, MKTV, KBN, KABA(KBS) 기독뉴스,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헤럴드, 기독일보, 교회일보, 아펜넷, 뉴스메이커, 뉴스한국

* 연락처 I (516)662-9322, (718)539-9090 (347)559-3030

뉴욕교협회장, 뉴욕목사회장, 뉴욕한인회장, 퀸즈한인회장, 민주평통회장, Grace Meng 하원의원 Peter Koo 뉴욕시의원, 뉴욕총영사, 뉴욕한국문화원장, 평화나눔공동체 대표

2012년 4월 14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부활이 주는 은혜에 참여하라!"

남가주 10개 지역 일제히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남가주지역의 부활절 연합새벽예 배가 부활주일인 8일 새벽 LA와 오 렌지카운티 등 10개 지역에서 일제 히 개최됐다.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에서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주최로 새벽 5시30분에 열린 LA지 역 연합새벽예배는 수석부회장 진 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사회 로 시작,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 회/부회장)기도, 정충일 목사(서기/ 새일교회) 성경봉독, 남가주장로성 가단(단장 정도영 장로) 특별찬양 에 이어 변영익 목사(벧엘장로교 회)가 '부활이 주는 은혜'(요11:23-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변 목사는 "경제 불황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집이 차압당하는 등 동서 사방이 막히는 절망감으로 한숨소 리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 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어둠과 고 통이 물러나고 새 생명의 빛이 온 누리를 평화롭게 했듯이 절망가운 데서 믿음가지고 나아간다면 소망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되고 축복의



남가주지역 부활절새벽연합예배가 10개지역에서 열렸다. 동양선교교회 에서 열린 LA지역 연합예배에서 합심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왼쪽 위) 창 대교회에서 열린 샌버나디노카운티지역 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김 성일 목사(오른쪽 위)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OC지역 연합예배에서 찬 양하고 있는 연합성가대(아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 고 박효우 목사(부회장/풍성한교 회)가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 부 흥을 위하여', 엄규서 목사(부회장/

윌셔크리스천교회)가 '조국의 평화 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정요한 목 사(미주베델교회/남가주연목회회 장)가 '이민교회의 부흥과 이민사회 의 번영을 위하여', 정우성 목사(부 회장/남가주광염교회)가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진유철 목사의 인도로 이날 모인 전

교인들이 합심기도를 했다.

이어 신연성 LA 총영사가 축하인 사를, 박형은 목사가 환영인사를 전 했으며 박종대 목사(남가주중앙교 회/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OC지역은 베델한인교 회(손인식 목사)에서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 주최로, LA동부지역 은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에서 동부교협(회장 김민섭 목사) 주최로, 중부 지역은 중부교협(회장 곽소건 목사) 주최로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에서, 벤추라 지역은 벤추라교협(회장 최상훈 목사) 주 관으로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이 상영 목사)에서, 샌퍼난도밸리 지 역은 샌퍼난도밸리교협(회장 류재 덕 목사) 주최로 밸리연합감리교회 (류재덕 목사)에서,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교협(회장 박혜성 목사) 주 최로 인랜드온누리교회(마원철 목 사)에서, 싸우스베이 지역은 싸우스 베이목사회(회장 김관중 목사) 주 관으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김준 식 목사)에서, 샌버나디노 지역은 샌버나디노교협(회장 김성일 목사) 주관으로 창대교회(이춘준 목사)에 서, 샌디애고 지역은 샌디애고교협 (회장 강용훈 목사) 주최로 샌디에 고 북쪽 지역은 팔로마한인교회(서 명성 목사)에서, 남쪽 지역은 한빛 교회(정수일 목사)에서 각각 예배 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풀러신학교에서 열린 갈등전환세미나에서 데이빗 옥스버거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한미기독회관 건립위한 일일식당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주관하는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한 일일식당

남가주한인목사회, 3년 계획 한미은행에 어카운트 개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한미기독교회관 기금마련 을 위한 일일식당을 9일부터 13일 까지 남가주지역 북창동순두부와 LA 한인타운 내 다호갈비에서 일제 히 개최했다.

개통식에서 관계자들이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30분 김영모 수석 부회장 사회로 북창동순두부 웨스 턴지점에서 열린 일일식당 개통식 은 이우용 부회장이 기도, 김영대 회장이 인사말씀, 리본커팅으로 이 어졌다.

김영대 회장은 "남가주목사회가 큰 포부를 갖고 한미기독교회관 설 립을 위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 다. 남가주의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 들이 기도하며 협력하고 동참하길 바라며 이 일이 좋은 열매로 맺어 지도록 격려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재승 한미은행 행장은 "남가 주목사회 임원들로부터 회관건립 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미은행이 회 관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자 한다. 목사회가 이번 사업을 위

해 저희은행에 계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이 완성 될 때까지 참여하며 협

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기독교회관건립의 목적은 △원로목회자들의 보금자 리 역할로 사용 △교회가 없는 무임 목회자들의 예배처소로 사용 △갑 작스런 소천 등으로 홀로된 홀사모 들의 보호단체로서의 기능발휘 △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한 인 아이들의 보호처소로 역할담당 △각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언 어 및 문화습득훈련장소 및 해외선 교사 미국 방문시 안식처 △6천여 목회자들이 함께 나누는 상조회 구 성 △이민기독교 역사박물관 등이 며 3년 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 행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5백만 달 러로 잡고 있으며 기존의 건물을 매 입해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이번 일일식당은 당초 9일과 10일 양일 간 갖기로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참 여 할 것으로 예상돼 13일까지 5일 간 오픈했다. 〈박준호 기자〉

"중재자 통해 제3의 길 찾으면 생산적" 풀러신학교 갈등전환 세미나 60여명 참석

풀러신학교(총장 리처드 마우 박 사) 갈등전환세미나가 지난 2일 오 후4시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 동대표 허성규, 홍진관), 메노나이 트교단 서남부 지역 컨퍼런스, 풀 러신학교 한인학생회 공동주관으 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갈등중 재와 관련해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빗 옥스버거 교수(풀러신 학교 목회상담학)와 갈등전환 전문 강사인 오상열 목사(기독교평화센 터 소장)가 강사로 나섰으며 약 60 여명의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참

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데이빗 옥스버거 교수는 "갈등 은 인간관계에서 당연하고 자연스 러운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의 선택에 따라 갈등은 관계를 깨 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새로 운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 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의 갈등상 황에 처한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 라 한 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 다"고 말하며, "중재자를 통해 서로 의 입장을 넘어서는 제 3의 길을 찾 을 때, 갈등은 생산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오상열 목사는 "오늘의 많은 교 회들이 갈등과 분쟁으로 아파하고 상처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 러한 갈등을 쉬쉬하고 숨길 때 악 화될 뿐이며, 오히려 그 갈등을 드 러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 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성경을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수많은 갈등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배울 수 있으며, 우리의 교회 상 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갓즈패밀리교회 설립2주년 기념행사

갓즈패밀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 6551 Western Ave, Buena Park CA) 는 교회설립2주년 기념 부흥회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22일(주) 오후3시 에 개최한다. 부흥회 일정은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이며 강사는 정기 영 목사(텍사스 어스틴 늘푸른교회 담임)

▲문의: (714)386-6491

온하늘교회 설립감사예배

온하늘교회(담임 연제선 목사, 2109 Chickasaw Ave, LA, CA)는 교회설 립 감사예배를 22일(주) 오후5시에 개최한다.

▲문의: (213)220-9001

미주평안교회 설립37주년 기념부흥성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는 오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교 회설립 37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임형태 목사(콜 로라도스프링스 한인장로교회 담임).

▲문의: (213)381-2202

'다시 체험하자 성령을!'

벧엘장로교회 피종진 목사초청 춘계부흥성회

벧엘장로교회(담임 변영익 목사) 는 피종진 목사초청 춘계부흥성회 를 '다시 체험하자 성령을!'이라는 주제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했다.

금요일 저녁 벧엘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변영익 목사의 사회로 열린 집회는 이성순 장로가 기도를 했으 며 피종진 목사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겔36:26-28)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피종진 목사는 '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주의 자녀 가 될 수 있었다"며, "많은 사람들 이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한다. 예수 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 가운데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었으며 오늘날에 도 누가 더 부유하고 학식이 많으며 더 많은 명예를 가졌는지를 삶의 표

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높음 을 논할지라도 우리의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며 미래 를 계획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 사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목요일 저녁 '일어나 걸으라!'(행3:1-10), 금요일 새벽 '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36:33-38), 토요일 새벽 '기도의 위력'(행 2:31), 토요일 저녁 '요단을 건너 라!'(수3:5-8)라는 제목으로 피종 진 목사가 설교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집회는 자녀들을 강단에 불러 모은 뒤 피종진 목사와 변영익 목사 가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새누리 · 민주당에 '기독교 주요 이슈'공개질의

온누리엔 부활의 축복이...이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국교회 일제히 부활절 주일예배

[미션라이프]부활절인 8일 전국 교회에선 새벽부터 오후까지 죽음 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가 이어졌 다. 참석자들은 소망을 잃고 고통당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부활의 기 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봉헌된 헌금들은 대부분 탈북자나 북한 어 린이, 다문화가정 돕기에 쓰여질 예 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2012 한국교회부활절준비위원회(부활절준비위)는 각각 한국교회의 역사적 숨결이 깃들어 있는 교회에 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한기총은 서울 인사동 승동교회 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 활의 기쁨을 나눴다. 승동교회는 일 제강점기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역 사적 공간이자 예장 합동 등 보수 신앙을 고수한 교단의 뿌리이기도

한기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2012년 부활절을 맞아 10만 교회, 2000만 성도의 원년시대를 열어나 가자고 선언했다. 홍재철 대표회장 은 대회사에서 "한국장로교의 모교 회이며 지난 118년 동안 민족신앙 의 산실인 유서 깊은 승동교회에서 부활절예배를 드리게 돼 감격스럽 다"며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 한다.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한 희망 의 부활을 맞이하자"고 역설했다.

예장 합동 이기창 총회장의 사회 로 시작된 예배는 이승렬(예장 개 혁 총회장)목사의 대표기도와 200 여명으로 구성된 승동교회 임마누 엘성가대의 찬양, 윤항기 목사의 색 소폰 연주로 이어졌다. 성찬 예식을 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남북통 일 등을 위한 통성 기도를 드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교단과 기성, 예장 백석, 기침 등 19개 교단이 동참한 부활절준비 위는 서울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정동제일감리교회 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개신교 교회다.

부활절준비위는 '부활, 거룩한 변 화'라는 주제아래 초대교회에서 행 하던 부활절예배를 모델로 2000 명의 참석자들과 빛·말씀·세례갱 신·성만찬·파송 예전 순으로 예배 를 진행했다. 김윤기 예장 개혁선 교 전 총회장의 부활초 점화를 시작 으로 이정익 장차남 조원집 황인찬 목사 등이 부활과 생명나눔, 한국교 회와 민족을 위해 간구했고 김종훈 NCCK 회장과 박위근 예장 통합 총 회장의 집례에 따라 성만찬을 나눴 다. 김영주 NCCK 총무는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을 낭독했다.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기독 교연합회나 교회연합회도 실내체 육관이나 역 광장,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서울 동작구기독교연 합회는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렸다. 김장환 수원중앙침 례교회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대한 민국 교회와 정치 경제를 살리고 청 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 동지역 140여 교회도 이날 행당동 무학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고 드려진 헌금을 모두 탈북민 돕 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같은날 오 후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다. 설교자로 나선 이영훈 여의 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예수님의 부 활은 2000년 전 무덤에서 나오심으 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을 받 고 부활 생명을 얻는다"면서 "부활 신앙으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 며 희망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인 천기독교총연합회도 인천삼산월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이규 학 감독이 '세가지 부활'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는 안양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수원기독 교총연합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전기독교연합회는 각각 수원실 내체육관과 대구스타디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 다. 광주지역 교회는 광주시청 광장 에서, 춘천과 제주지역 교계는 석사 감리교회와 제주영락교회에서 각 각 예배를 드렸다.

한편 11일 총선을 앞두고 몇몇 후 보들은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 장 소를 찾아와 '교심(教心) 잡기'에 주 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는 신 학, 예전, 신앙고백, 기독교적 삶의 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장로교 회의 결정적 영향 아래 있었다"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고 교육 과 의료사업을 맡으며 민족주의 운 동의 산실 역할을 했지만 일제 하에 서 큰 수난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과 민주통합당에 보낸 기독교공공 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양당 이 최근 보내왔다며 9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 면 양 당은 모두 기독교가 한국 근 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정했다. 또 이 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 유산의 보존에 깊은 관심 을 갖고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대

표회장 이용규 정성진 목사·전용 태 장로)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하지만 양당은 대한민국의 정체 성, 기독교의 역사교과서 반영, 탈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봉합당의 입장 공공정책위제안 기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추후 노력 기독교 근대문화 보존 및 활용에 노력 특정종교면항지원반대/선교의 자유 보장 중교합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자율성보장 탈복지문제에 대해서 중교단체와 접력 및 대복교류에 있어서 대한 만국 국민의 중교자유 보장 원칙 등의 원칙적으로 공감, 추후 심도 깊은 검토 북한 및 종일문제 추후 논의를 거쳐 입법 및 대선정책에 반영 노력 • 한국가유고공공정책임원회 제공

취급되지 못했다는 기독교계 주장 에 대해 새누리당은 교계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민주통합당 은 무응답이었다.

한국기독교의 해외 선교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빈민구제, 문맹퇴 제안한 10개 분야 42개 항목 내용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특 히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기독교역 사박물관 건립, 기독교연구지원에 있어서 타종교와 형평성, 각종시 험 일요일 실시문제, 재개발과정에

근대화 기여엔 동감… 교과서 반영 · 동성애에는 시각차

북자, 낙태,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대한 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 신에 기초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 해 새누리당은 "깊이 동의 한다" 고 밝힌 반면, 민주통합당은 아무 런 언급이 없었다. 또 동성애 문제 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안 없이 동 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 계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다 고 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기독교가 초·중·고등 역사교과 서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공정하게 치, 의료사업 등을 통해 인류문화 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정 부는 이런 선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교계의 주장에 대해서 도 새누리당은 선교의 가치를 인정 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통합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기독교 공공정책 선정에는 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 공공정책 포럼, 현대기독교연구소 등 10여개 선교단체의 목회자와 신학자,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양당 이 이번에 밝힌 내용은 정책위가 서 종교차별방지, 종교평화법 문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 이 없었다"며 "앞으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기독교계의 제안 에 대해 각 정당의 보다 분명한 입 장 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일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국교 회 지도자 100여명을 초청해 '기독 교 공공정책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한국장로교 100년 공헌과 과제'

"교육의료선교·민족주의 산실…분열극복 신뢰도 높여야"

한국 장로교가 한국사회와 문화, 사회봉사, 신학, 교회에 끼친 영향 은 무엇일까. 1912년 '조선야소교장 로회' 총회에 한 뿌리를 둔 예장 통 합과 합동, 고신, 합신, 대신, 개혁 등 한국 장로교는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장로교신학회는 7일 서울 신

문로 새문안교회에서 한국장로교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학술세미 나를 개최하고 한국장로교회가 한 국사회에 끼쳐온 광범위한 영향력 과 역할을 고찰했다. 주제발표에 나 선 이상규(고신대) 교수는 지난 100 년 한국 장로교회의 업적을 제시하 고 교회 연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

그는 "해방 이후 정치 사회적 혼 란기 속 장로교는 분열을 거듭했으 며, 1960·70년대 교회 성장을 경험 한다"면서 "80년대 이후 한국교회 는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 등 밖으 로부터의 도전과 신학교 난립, 교회 분열, 사회적 신뢰도 상실 등 내부적 혼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00년 역사의 한국 장 로교회는 대사회 정책의 수립, 이단 대처, 신학발전, 교회연합 운동, 통일 대비, 기독교적 가치구현 등의 과제 를 안고 있다"면서 "특히 교권주의와 교회구조의 계급화, 교회분열을 극복 하고 연합을 위한 시도에 나서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과발표에 나선 최재건(연 세대) 임희국(장신대) 장동민(백석 대) 박응규(아신대) 이은선(안양대) 연규홍(한신대) 등은 한국장로교회 가 교육과 문화, 사회봉사, 신학과 교 회 등에 미친 영향을 소개했다.

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하 다.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 가 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도 있 느냐'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무려 21.7%에 달한 것이 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 회교육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역 할을 요청한다는 게 기교연의 분석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 해경험 중 '금품갈취, 신체폭행, 성 추행'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 았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 괴롭힘, 왕따' 부분은 가해 경험이 1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적어도 '따돌

박응규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는 국가권력이 절대화되는 현상을 방지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것을 상대화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회는 정부나 정치권력에 유착하려 는 태도를 버리고 정치적 무관심과 초월·도피적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연규홍 교수도 "한국장로교회는

연합과 일치로 양극화되는 사회구조 를 공생사회로 개혁하고 분단 현실 에서 평화통일의 꿈을 심어줄 수 있 어야 한다"면서 "특히 장로교회는 이 땅에 화해자이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생명농업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생사회 봉 사 패러다임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부탁했다.

림' 영역에서만큼은 교회학교에서 도 일반 학교의 양상과 크게 다르 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행인 것 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해 결에 교회생활이 긍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설문 응답자의 33.4%는 '교회생활 을 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는 30.2%, '보통이다' 는 31.4%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완 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교회활동 은 예배, 설교, 친구들과의 관계 순 이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 문에는 '없다'고 답한 학생이 48.8% 로 나타나 절반가량이 최근 1년 동 안 학교폭력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 한 성경공부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 이 71.9%로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폭력에 관련된 성경공부를 전혀 받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교회교육에 서 학교폭력을 더 관심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학교 폭력 문제에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교회가 학원폭력 문제에 대한 책 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에 '그렇다'(80%)라고 한 응답자가 압도적이었다. 교회가 학교폭력 문 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책 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여준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한 교회학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를 묻는 질문엔 1위가 성품훈련 프 로그램, 2위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3위가 신앙성숙훈련 프로그램이었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총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때 교회는 이 땅 에 '하나님의 교육'을 펼쳐가는 센터 가 되고, 학교폭력 문제도 근원에서 부터 해결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190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진단...'설문조사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회 학교 안에서도 100명 중 2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 력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 일부는 일반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망된다. 기 독교학교교육연구소(기교연·소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지난 2일 서 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진단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박 소장은 지난달 5-12일 교회학교 학생 739명과 교 역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 교 및 교회 내 학교폭력 실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다 른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과 같은 피해를 당한 학생은 응답자의 2.2%

였다. 수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사 랑과 섬김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서도 학교폭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 율이다.

'교회 안에서 다른 학생에게 학교 폭력과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의 1.5%는 '있다' 고 답했다. 또 교회에서 다른 학생 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 다는 응답은 5.8%에 달했다. 교회도 학교폭력의 예외지역이 아님을 보 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 도 상당수가 일반 학교 폭력에 가담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I, L,A,, CA 90010



SAM CARE 샘 복지재단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SEVIS I-20 FORM 발행

신략과/ 선교학과 |목교교유학과/ 목회상당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참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ell reformeduniversity@yehoo.com TEL, (218)786-8800 FAX,(218)786-8804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계역대학교(웹) ****,reformeduniv.org

7267 MITAL (15232"

대표 박세륵 선교사 olen za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Hanna Flower Shop



本土: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구독료	캐나다 한국및 동남아시아	\$110 \$190	남 미 아프리카	\$190 \$19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	¶ 선물로 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영 어 :	-	목 사 🗆 평년도 🗆				
배달주소							
전화/Fax	()	()					
			문을 보내는 경우에 호를 격어 주십시오.	=			
받는분 여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 E-mo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B-mail: ny@chpress.nct

日 字 \$100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my@chpress.net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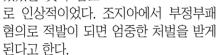
이슬람 뉴스

이슬람연구네트워크에서는 3월 3주간과 4주간 조지아, 카타르, 태국 등지를 방문 하여 일반적인 선교와 더불어 이슬람 선교에 대한 현황을 나누는 세미나를 가졌습 니다. 전반적으로 이슬람 세력이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무장화와 무 력의 사용도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나누며 새로운 정황들을 알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해주신 동역자 여러분 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조지아(Georgia) 상황

첫 번째 방문지는 그루지야로 더욱 많 이 알려진 이 나라의 정식명칭은 조지아 (Georgia)이다. 실제 그루지야는 러시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조지아 의 대통령이 그루지야라는 호칭을 하지 말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있 다. 조지아라는 이름은 4세기경 희랍정

교회를 전한 성자 의 이름에서 국가 명이 유래된 것으 로 보인다. 부정부 패가 전혀 없는 것 을 무척 자랑스러 워한다. 현지에 갔 을 때, 경찰서의 사 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참으



인구 5백만 명의 조지아의 주요 종교는 희랍정교회이며 83.9%를 차지하지만 이 슬람교도 9.9%를 차지한다. 희람정교회 의 경우, 성자나 성지 등을 찾아가 성호 를 긋고 동상에 키스를 하는 등 미신적 요 소들이 강하다. 주로 높은 담장 안에 위치 한 성당과 수도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쟁 발생 시 성당이나 수도원이 적으로부터 몸을 숨 기는 곳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슬 람교도의 경우, 주로 인접 국가인 아제르 바이잔에서 이주한 70만 명이 주종을 이 룬다. 현재 조지아에서 모슬렘들을 대상 으로 하는 선교사는 단 한 가정뿐이다. 물 론 나머지 종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신 교 선교사의 숫자도 극소수이다. 여러모 로 조지아에서의 개신교 선교는 쉽지 않 은 상황이다.

그러나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 우, 수백-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 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교회들 중 일부는 이미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되기 전 현지 인에게 교회의 운영이 위임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사례의 기반에 '까레스끼'로 알려진 고려인들이 있었다 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스탈린에 의 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현지



러시아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온 조지아 목 사. 통신으로 M.Div 수강을 희망하고 있다.

양곡교회

Tel (065)210 -6550, Fax (065)210 -5510 (841-370)동안 생명의 성신구 중점로 415 808-7833800, 610

담원복사: 지용수

세탁기도회(학합): 오랜 5:30/8:50/8:05

왕성교회

761 (32)2-658-4813, 331-254-7294 4884 8917 (1818-8: 1541-54 (161-023)

담임목사: 결자연

주철 (부여배: 오랜 7:30 주철2부여배: 오랜 8:30

장위제일교회

TH (02/042-59명), Fax (12/042-6852 (136-631) 서울시 경제구 중위3종 79-12

담염목사: 김기원

무집15여배 요천7:30 무집2등여배: 오천 11:30 무요해하: 오루 3:30 유해기위해: 오픈 5:30 윤요선대기문화: 오루 3:30

인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결 국 중앙아시아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상황

조지아와 달리 100% 이슬람 국가인 아 제르바이잔은 약 100명의 선교사들이 선 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초교파 선

> 교단체들의 평신도들 이 대부분이다. 미국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유일한 신학교는 5명 의 신학생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소수의 그리 스도인들과 선교사들 은 드러내놓고 선교활 동을 할 수 없는 실정

이다. 공식적으로 인가 받은 교회가 10개 가량 되지만 현지화까지는 거리가 멀다.

현지력으로 신년을 맞이한 아제르바이 잔 선교사들은 자국에서 선교모임을 갖 는 일이 어려운 까닭에 버스로 국경을 넘 어 인근 국가인 조지아에 모여 세미나를 가졌다. 초청 강사로 참석한 필자(전호진 총장)가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의 방향"에 대한 강연과 이슬람 특강을 진 행했다. 또한, 해당 모임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비 감소로 인한 선교 위축과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들이 다루었다.

카타르(Qatar) 상황

인구 30만 명의 카타르는 1인당 GDP 가 30만 달러에 달한다(UN 공식집계로 는 10만 달러). 모든 노동자들은 인도, 파 키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며 약 150만 명이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회는 약 10개이다. 사회 분위기 는 전반적으로 자유롭지만 개신교 전도 나 선교는 쉽지 않다. 소수의 선교사들만 이 드러내놓지 않고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 카타르 항공사에 여 승무원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약200 명의 한국인 여승무원이 있는 것으로 집 계되는데 애초에 우려했던 무슬림으로의 개종은 생각만큼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해당 여승무원들은 주일을 이용해 카타르 내 자국민 교회를 방문하 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2024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노력 등 여 러 면에서 국제적인 허브의 역할을 감당 하기 원하는 카타르는 이슬람 선교에 있 어서도 적극적인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

태국(Thailand)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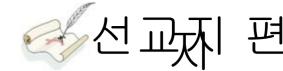
95%의 인구가 불교도이고 약 4-5%가 무슬림인 태국에서 주된 무슬림 거주 지 역은 남부이다. 필자는 남부 핫야이 주에 서 열리는 이슬람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 여 "캄보디아와 한국의 이슬람화"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캄보디아와 한국에 서 금융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는 이슬 람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 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부분에 많은 참가 자들이 공감하였다. 해당 대회에는 말레 이 반도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 하는 10개국 선교사와 현지인 교회 지도 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약 100명가량 되었 다. 신학적, 학술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슬람을 연구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연합의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

리가 되었다. 3월31일 정오, 회의를 마치고 캄보디아 출국을 위해 회의장에서 떠난 지 한 시간 이 흘렀을 때 회의장 인근 다른 호텔에서 무슬림 세력들에 의한 폭탄 테러가 일어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회의장에 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제일 좋은 호텔이었다. 이 테러로 말레이시아인을 비롯 3명이 사망했으며 지금까지 400여 명의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병원에서 치 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인 접한 다른 주에서도 두 차례의 폭탄 테러 가 더 있었는데 이 테러로 11명이 사망하 고 120여명이 부상당했다. 외신들은 이슬 람 반군 테러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 규모 공격은 종종 있었지만 이와 같은 대 형 테러는 처음이라고 한다.

프리에우판 다마퐁 태국 경찰청장은 " 폭발이 난 방식과 짧은 주기로 보아 3건 의 폭탄테러가 동일 세력의 소행으로 추 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잉락 친나왓 태 국 총리는 "누구 소행인지 이미 파악했으 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건 지역은 불교계가 다수인 태국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슬림계 말레이족이 집단 거주하 고 있으며 이들이 분리 요구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아 5 천여 명이 희생됐다.

〈이슬람 연구 네트워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012년도 주어진 사 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 에 감사를 올리며 이 일에 동역해주신 교 회와 온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을 문안드 립니다.

저희들은 2012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 된 남미 성경묵상 사역 선교사 모임을 시 작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힘쓰고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학교 등록

지난 1월 수련회를 마치고 멕시코에 도착 해 짐을 풀고 바로 올해부터 개강하게 된 "에스라 성경학교" 등록 접수를 받았습니 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부족한 것도 많 지만 26명 정규 학생과 6명 청강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현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사 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 들과 복음의 열정을 품고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 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간관계로 공 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 학기부터 는 오전반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 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기에 더욱더 부 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세미나

"에스라 성경학교" 사역 외에 평일 또는 주 말 오전이나 저녁시간을 통해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세미나도 끊임없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Cuautepec 지 역 Cristo Verdad y Vida 교회에서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3 시간 이상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모임까지 꾸준히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느끼며 그런 마음을 허락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Fuente de agua viva 교 회 세미나입니다. 수년 전 부터 다른 현지 목사님을 통해 저희 사역을 소개받았지만 올해 비로소 첫 세미나를 가질 수 있었습니 다. 7주 동안 "성경묵상 훈련"을 진행했는 데 마지막 모임 때는 연장해서 인도해달라

는 부탁을 받고 5월 4일부터 6주 동안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반가운 설교 청탁을 받았습 니다.

4년 전 몇 번 말씀을 나누었던 Puerta del Cielo교회 청년부담당에게 연락을 받고 3 월 14일 "Semana de la Juventud"(월/금 매일저녁 찬양과 말씀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전하는 집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미로 이민 가 그곳에서 자라 문화와 언어의 벽이 없이 현지 분들과 관계 를 맺다 보니 청년들이 직접 추천하고 의견 을 모아 초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난 누구에게 좋은 영향 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 허락하신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현 지교회를 돌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묵상집 출판과 여름 수련회

두 달에 한 번씩 출판되는 성경묵상집도 꾸 준히 출판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부씩 출 판하고 있지만 수요를 다 채울 수 없는 안 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일을 돕는 편집인들 과 재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꾸준히 진행되는 정기 사역과 현지 동역자들로 인한 감사함입니다.

매달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와 "리더 양 육"은 저희들이 섬기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리더 양육" 모임은 성경묵상 사역 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앞으로 세 미나 인도와 소그룹 모임 지도자로 훈련받 고 계신 분들입니다. 묵상사역 7년째 접어 들고 보니 이젠 그 분들 중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서 로 의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으 로 묶어 주시고 성장시켜주셨습니다. 참으 로 감사합니다.

이번 7월 16-19일에 청, 장년을 대상으 로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06-2008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이번 에는 대상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박4일 동안 개인 성경묵상훈련과 소그룹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 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 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 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답입목사: 장향의

답입목사: 결정본

답입목사: 초 운

담임목사: 어진호

주십1부에써: 오랜 7:00 주십2부위에: 오랜 8:30

충신교회

74/52년-792-7740 서울시 옵션구 의용분 352-67 (140-03)

박지만/한여정 선교사 드림 ▲연락처: ebesdras@gmail.com



청주주님의교회

Tel.(043)276-9931, Fee.(043)272-8554 361-833 番号 発祥科 高明子 从粉景 259-12

단임복사: 주서리



주안교회

담임복사: 나관일

주입1학학의 2년 6:00 수입2학학 2년 8:00 주입2학학 2년 10:00 주입2학학 2후 12:00 주입2학학 2후 2:00

청디교회

Tel.(82)2-482-3535, Fez.(82)2-488-4608 MBA 2087 GUSSE 448-25

담임꼭사: 최용도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아는 게 힘!(7)

새라김 사모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TVNEXT.org) 설립자, Christian Coalition 한인대표

캘리포니아를 회복시킵시다! 건 강한 가치관,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서명운 동에 지금 동참해주세요! SB48 저 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이 마감일입니다. 긴급 S.O.S!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부분적인 지역들은 부모님들 몰 래 아이들에게 동성애 및 성전환 자, 양성애자 라이프스타일들을 ' 건강"하고 극히 "정상적"이며, 사 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어린이 공립학교에서는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습니다.

아직 성 정체성이나 도덕적 가치 관들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어 린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서 부모 들 몰래, 성 정체성의 균형이 제대 로 잡혀지지 않은 교육을 고스란 히 세뇌(brainwash) 당하고 오는 격이 돼버린 것이지요.

비록 교과서로 만들어지지는 않 았어도 수십년 전부터, 우리의 자 녀들, 손자손녀들은 가정에서도 교 회에서도 제대로 정확히 배우지 못했던 동성애 및 성전환자들, 양 성애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척 긍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Human Rights(인본주의)란 이름아 래 학교에서 배워왔다는 것이 지 금의 현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국민투표에 서 이미 이긴 Prop8을 샌프란시스 코의 몇 안되는 판사들 맘대로 뒤 집고자 하여 지금까지 계속 Prop 8이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를 싸워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2011년에는 동성애자인 상하의원 Mark Leno(민주당)에 의하여 이 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의 사회과학 역사 교과서에까지 동성 애자들을 긍정적으로만 가르치는 SB48이라는 법안까지 만들어내었 지요. 그 후 SB48은 캘리포니아 주 지사인(민주당) Jerry Brown에 의 하여 쉽게 통과를 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늘어가는 것을 반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라 는 책에 한번 글자로 새겨져 나오 기 시작하면 잘못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것들을 삭제시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를 들어, 지금 공립학교에서 가르 치고 있는 진화론에 있어서 상당 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잘못된 것 임을 과학자들과 가르치는 선생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으면서도 교

과서에서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 전 체를 다 바꾸는 것을 지금까지 미 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한 사 람들도 지금 이성애자로 돌아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 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 애자 성향이 환경과 잘못된 두뇌 의 작용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태 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들로 태어난 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증명되어 있 지 않을뿐더러, 지금 이성애자들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 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 들로 변해 돌아온다는 좋은 소식 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됩니다. 동성애자 친구, 가족들을 위해 기 도하며,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행복 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알 려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미국과 캘리포니아가 회복되는 서 명운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세요!

또한 앞으로 미국에서 살게 될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깊이 아끼고 염려하는 한인 사회 가 일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미 국시민의 권리와 영향력을 발휘한 다면, 확실하게 승산은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무것 도 하지 않는다면, 또는 매우 소극 적으로만 반응한다면, 또는 "나 중 심" "내 교회중심" "내 가정 중심" 으로만 우리 시야와 비전을 좁힌다 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라도 그들 을 지켜주지 못한 핑계 외에는 아 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 습니다.

비록 시민권자가 아니고 유권자 가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사 시는 모든 한인 분들은 이 서명운 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또는 자원봉사로라도 캘리포니아와 미 국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 며 힘써 의의 깃발을 들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3가지의 발의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발의안들 에 다 서명하여 주세요.

 Parental Rights in Education(PRE): "학부모의 자 녀교육에 대한 권리보호"

이 발의안은 다른 발의안에 비해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발 의안으로서, 동성애 교육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사회과학 과 역사, 가정교육에 대한 교육내 용들 중, 부모가 자녀들이 배우기 원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이며 비도 덕적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있 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학업에 서 미리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 한 과 권리들을 보장하는 발의안 이다.

현제 SB48의 법안에 의하여 "부 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미 빼앗긴 상태이며 부모들은 아 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에 실제 적으로 관여할 수도 아이들을 데리 고 나올 수 없게 되어있다.

2. California Parents Rights (CPR): "낙태전 부모의 허락받 7|"

이 발의안은 18살이 안된 자녀 들이 부모의 허락과 의논없이 맘대 로 의사들하고만 결정하여 낙태하 는 것을 막는 발의안이다. 의사들 은 48시간 전에 부모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게 만드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이다. 보통 미성년자들은 돈이 없고 몰래 하여야하기에 어느 누구 의 보호도 없이 Planned Parenthood처럼 우리의 세금을 받음으 로 낙태를 원하는 미성년자들에게 는 싸게 낙태시켜주는 곳을 찾아가 서 청결성과, 전문성도 없는 의사 와 간호사들에 의하여 낙태를 하 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낙 태로 가장하여 아기를 태어나게 한 후 성매매하는 다른 데로 돌려지는 위험도 따른다.

3. CLASS ACT:

Children Learning Accurate Social Science Act의 약자로 이미 SB48법안 통과에 의하여 Social Science(사회 과학) 및 역사과목 에서 동성애/성전환자/양성애자 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만 교과서 에 기록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 생 12학년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교육을 전적으로 반대하며 그 법안 을 폐지하기 위한 발의안이다. 다 시 말하면, 사회과학과 역사과목에 있어서 자녀들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들에 대하여 정확히 배 우게 하는 법안으로, 현 SB48의 한 쪽으로 기울여진 교육내용들을 삭 제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발의안들의 마감(Deadline): 만 일 2012년 11월 국민투표(ballot for election)를 위한 법안으로 가 져가기 위하면 "한인" 서명인들은 4월 16일(늦어도 17일까지) 서명 된 청원서가 밑의 주소로 도착하 도록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Dead drop due date to California Attorney General's office가 4월 20 일이기 때문이다.

▲연락처: tvnext.org@gmail.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자기 부인(否認) (마21:23-27)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세례요한 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 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 다. 즉 그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의 입장, 곧 여론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진실한 일꾼 들은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론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세상으로부 터 핍박과 고난,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 다.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여론의 민감 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 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 기 부인'입니다(마16:24).

행함이 없는 지식 (마21:28-32)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 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 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경건 생 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 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 알고 있었

습니다. 그들에게 경건 생활을 위한 기초는 이미 마련 되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과 탐심이 그들 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듯이 순종이 따르지는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마21:33-46)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집주인이 농부들의 행위를 알 고서도 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 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 리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엿보게 됩 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

기에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 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 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 면에 중병에 걸린 사람은 한시가 급합니다. 교회 울타 리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돌이키도록 복음 을 전하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 시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천국 예복 (마22:1-14)

본문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11-13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 잔 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며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미 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오가다가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스 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잔치 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복을 준비하였 습니까? 그것은 임금이 친히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천 국 예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칭 의라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롬3:28). 천국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 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지 금 확인하십시오.

강력한 무기 (마22:15-22)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에 놀라움 을 표시했을 뿐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큼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 단과 싸울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가 어 떤 것인지 교훈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 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위대 한 능력입니다(고후10:4,5). 우리가 이 무기로 마귀의 공격에 대응한다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패하 는 일이 없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우쭐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패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정 (마22:23-33)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들과 예 수님 간에 있었던 '부활논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 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로 주 후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바리새파와 양대 산맥 을 이뤘던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 파의 두드러진 특징은 유전을 거부하고 부활과 영혼불멸 및 영적세 계를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 직 '지금', '여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 인들에 비해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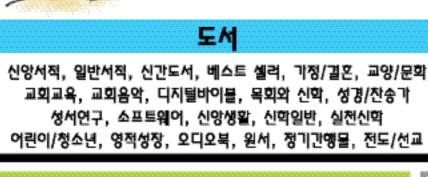
그리고 오직 그들이 인정했던 것은 성문화된 율법, 모 세오경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 식층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 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하 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과학적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 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합니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고 그 성 경이 말하는바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 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을 위안 최고의 연물

●다니엠 전자정경

●만나 전자성경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교화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출괴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좋은 화결의 제품, 저렴한 가격

 유항/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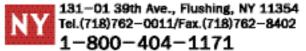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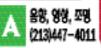




인터넷 샤핑몰 www.gospelmall.com







명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강사: 손인식 목사

-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얼바인, 캘리포니아)
- 창조적 목회프로그램, 강렬한 설교와 영성사역, 현재 6천명 출석 성도
- · 이민목회 가정사역 및 성장형 예배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 KCC/그날까지 선교연합 대표간사
- Washington Bible College/Capital Bible Seminary

일시: 2012년 4월 24(화) - 25일(수)

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장소: 뉴욕 퀸즈한인교회 (이규섭목사)

주최: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 연구원 **등록:** 일인당 30불

인원제한:이민목회자 20명 제한

(멘토링 세미나 특성상 인원제한)

미국에서만 35년째 목회하며 이민교회의 특성, 장점, 약점, 성장, 비전실현 등의 모든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6천명의 출석성도, 250개의 셀교회, 43명의 목회진, 92개의 평신도 사역팀들이 하인교회의 건강한 모델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见你吃! 叶叶观台小叶!

到时经是到过时间到 北台型羽地组

3기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참가 신청서

이름 전화번호 H)

이메일

섬기는 교회

직 책: 담임목사()

연 령(Age)

기도제목들:

신청서 보낼 주소 (베델한인교회):

Attn: 김영빈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체크보내주실때: Pay to the order of: Bethel Korean Church

* 위의 신청서를 절취하신 후 등록비를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접수: 4월 20일까지 접수마감(선착순) / 반드시 등록비 동봉 접수
- 접수양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연락처: 김영빈 목사 (714-873-7315 / bethel4jx@gmail.com), 류태우 목사 (714-323-3931 / holynation2003@msn.com)
- 이메일: pastorsoffice@bkc.org

제 27회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발행인 장영준 목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주최: 미주크리스천 신문

강











선성덕 목사



김기원 목사



쪼일래 목사



송용걸 목사 • 현지준비위원장



이영업 목사



이정연 목사



김승욱 목사



흥민기 목사



꼬일구 목사



김규동 목사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	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	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호	1						
주소	_						
전화		Fax.			E-ma	il.	
사틱	4						
주소	_						
전화		Fax.			E-ma	il.	
7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			
_ (/ 과 끝든 경찰 뜨기전함	등록금	목회자			
□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L/ ml	평신도				
			X B				
			소계			04.11	
			선금 잔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서 명:

-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숙 소: 워커힐 호텔
- 1)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참석대상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온라인등록 웹사이트 www.chpress.net 를 방문하셔서 개인정보와 교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 록 금

목사 · 선교사: 200달러(24만원) | 평신도지도자: 200달러(24만원) 한국현지등록: 50불(6만원)(숙박제외) (※선착순 마감)

■ 연 락 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등록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79-910002-91105), 예금주 : 금란교회, 입금자명 옆에(세마나)를 기재해 주세요.

■ 항공권/관광 문의

-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